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제 27회 문화회원 작품전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월요서예 · 화요서예 · 목요서예
한국화 · 문인화 · 민화
수채화기초 · 수채화중급
캘리그래피 · 디지털카메라 · 어반스케치



발 행 처 예산문화원

주 소 (우324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연 락 처 T. 041-335-2441 / F. 041-334-4330

발 행 일 2024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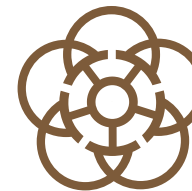
발 행 인 김태영

기 획 박세진

행정지원 이충환, 이다연, 장혜민, 최유주

편집/인쇄 (주)디자인봇뜨리 (T.041-338-4311)

* 본 도록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제27회

문화회원 작품전

CONTENTS

발간사	7
월요서예	8
화요서예	18
목요서예	38
한국화	53
문인화	67
민화	80
수채화기초	91
수채화중급	97
캘리그래피	112
디지털카메라	124
어반스케치	135



발간사

한해의 마지막까지 더욱 다사다난하게 느껴지는 임진년이 저물고 2025년 을사년의 한해를 마주하며 갈무리 되어가는 연말입니다. 금년에는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뿐만 아니라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과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는 동아리까지 크고 작은 넓은 범주의 문화학교를 통해 보편적인 선진국형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달려온 한해 였기에, 예산문화원의 품속에서 1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즐거운 문화학교 수강생 여러분들의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가 더욱 뜻깊게 여겨 집니다.

예산문화원 문화학교는 1998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받은 이래 예산군의 지역민들에게 보편적인 문화향유권 보장,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부여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여 지역문화 육성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8년 제1회 문화학교 회원전으로 향토 한류의 첫출발을 알린 이후 올해 27회째를 맞으며 서로의 재주를 나누어 한해 한해 문화공동체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에 감개무량함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앞으로도 예산문화원이 지역민들의 문화를 통한 꿀벌집 같은 존재로 예산군민들 누구나가 배우고 익히는 평생 교육의 장이자, 1,100년 예산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의 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한해 동안 문화학교를 이끄시느라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지도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민의 열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김태홍 충남도지사님 최재구 예산군수님과 충남도의회, 예산군의회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께 새로운 문화의 맛을 전달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댁내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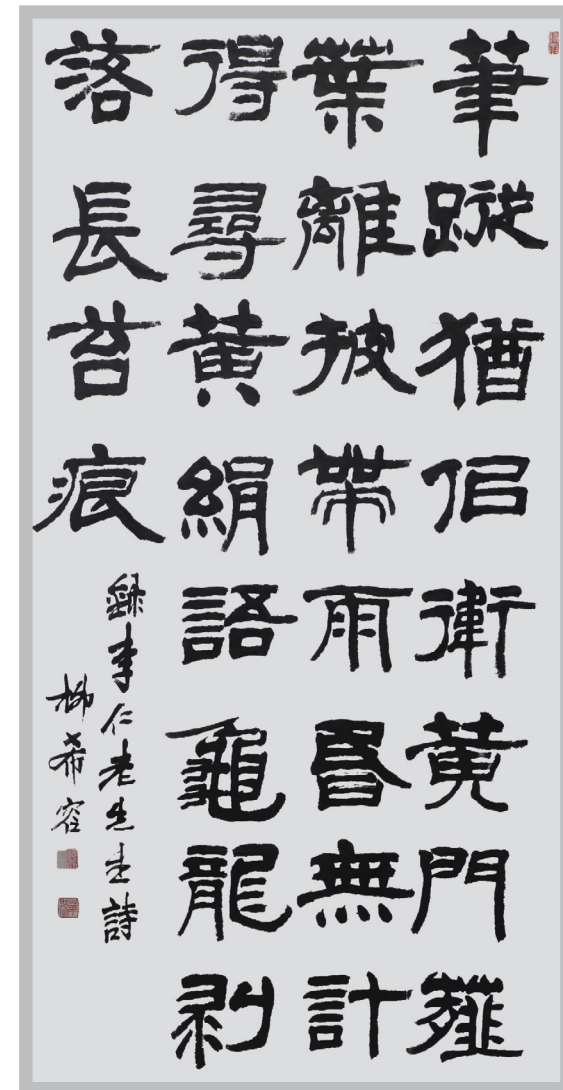
2024년 12월
예산문화원장 김 태 영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월요서예

지도강사 오윤선

출품회원 류희용 양승학
박복순 유천호
안경옥 이왕섭
안정희 홍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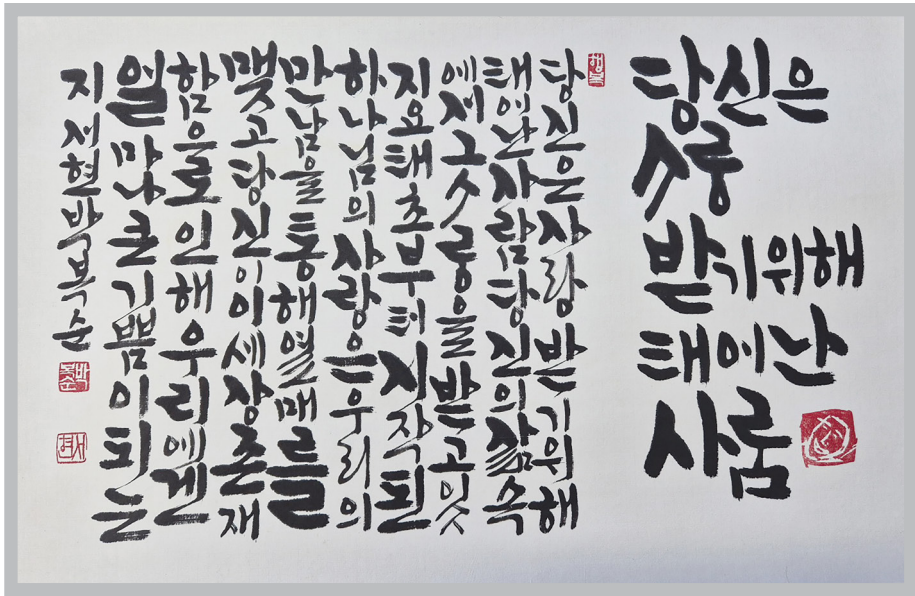


비석
류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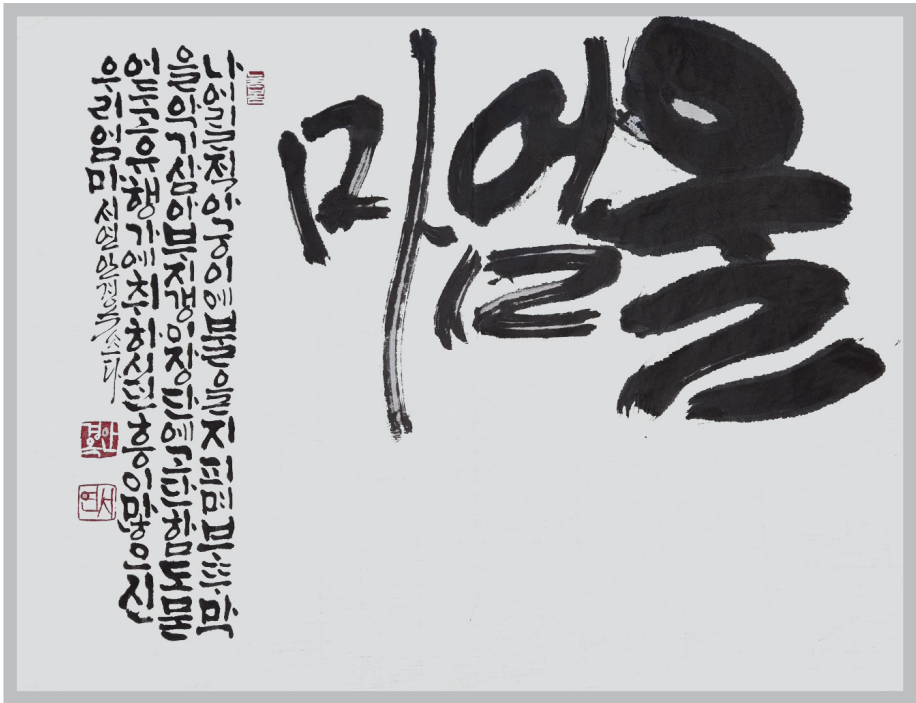
붓자취는 마치 위황문 같은데
부추잎은 갈래갈래 비를 띠어 어둡구나
황건의 말을 찾을 수 없는데
거북과 용이 벗겨져 떨어지는 이끼의 흔적일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현 박복순



약손
서연 안경옥



당신의 체온 그대로가
약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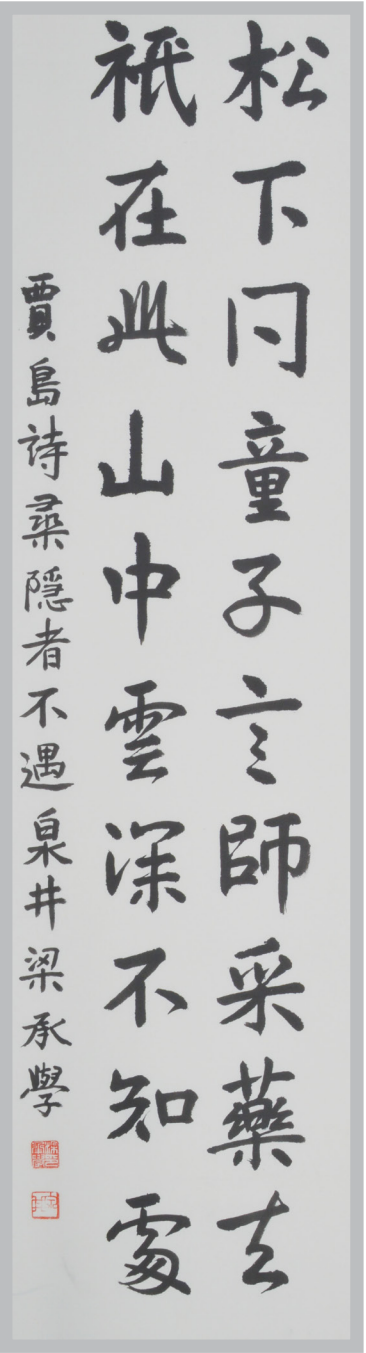
백복자집
청우 안정희

백가지 복이 스스로 모인다.



賣島의詩 尋隱者不遇
천정(泉井) 양승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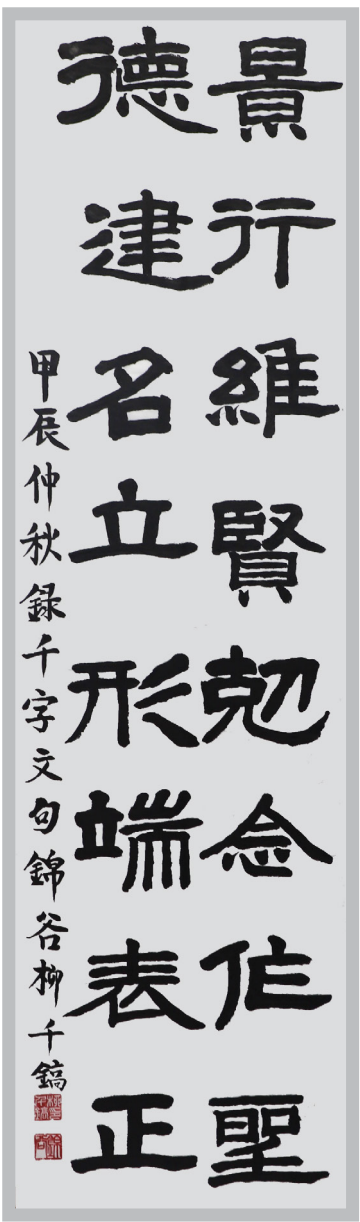
松下問童子 言師采藥去 祇在此山中 雲深不知處
소나무 아래서 동자에게 물으니
스승님은 약초 캐러 나가셨어요.
지금에 산중에 계시는데
구름이 깊어 찾을 수 없어요.





천자문구
금곡(錦谷) 유천호

선행을 몸소 쌓으면 현인이 되고
열심히 도의를思念하면 현인이 되고
덕을 성취한 현인 군자는 세상에 나타나고
形이 바르면 의문도 바르게 된다.



치가이근검위본 입신유효제당선
(治家以勤儉爲本 立身有孝悌當先)
청송(靑松) 이왕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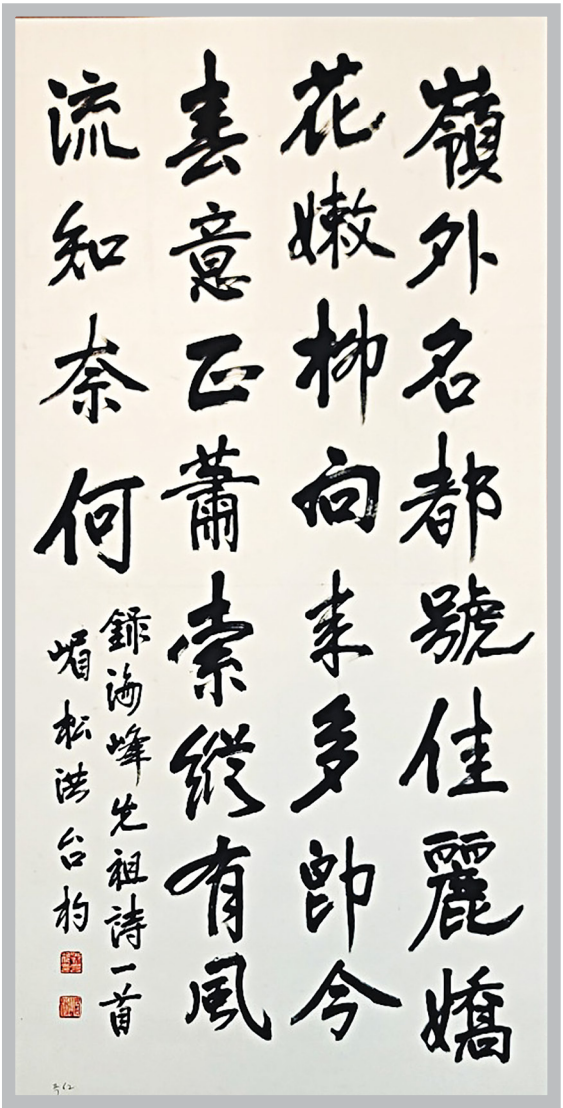
집을 다스리는 데는
부지런하고 검소함으로 근본을 삼고,
몸을 세우는 데는
오직 효도와 공손을 먼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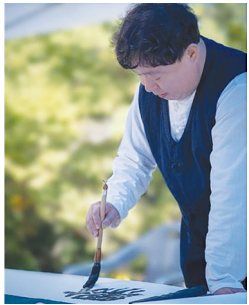


해봉 홍명원 시
미송 홍태표

고개넘어 명도를 가려지라 하는데
예쁜 꽃 어린 버들 예로부터 많더라
지금의 봄은 너무나 적적하니
자유로운 동류에 어찌함을 알겠는가



월요서예 강사찬조작품



청원 오윤선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학과
- 대전대학교 인문대학 서예학과 대학원
- 사)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충청남도지회장
-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충남지회장
-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부지부장
- 새김인 ART-K 대표



비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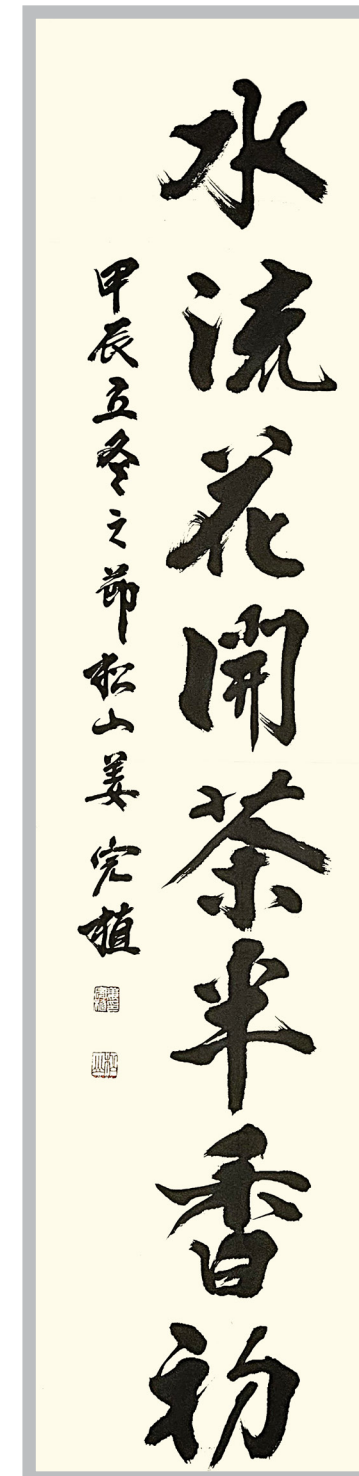
용이 구름 위를 날다.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화요서예

지도강사 윤경숙

출품회원	강완식	김영호	이승성	최민경
	강월규	김오경	이왕섭	한은수
	권혁충	김태선	정명세	한창항
	김선경	백명기	정은주	
	김영렬	이순영	진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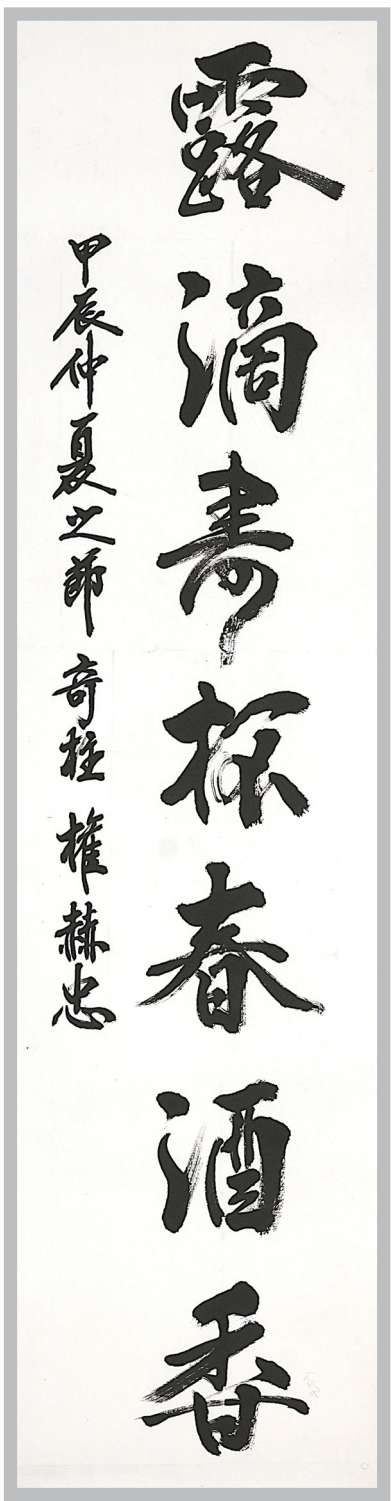
水流花開 茶半香初
(수류화개 다반향초)
송산(松山) 강완식

물이 흘러가고 꽃이 피는 경지에서
차를 반쯤 마셨는데도 향기는 그대로 있네.



행복(캘리)
다원(多垣) 강월규

행복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다.



露滴壽杯春酒香
(로적수배춘주향)
기주(奇柱) 권혁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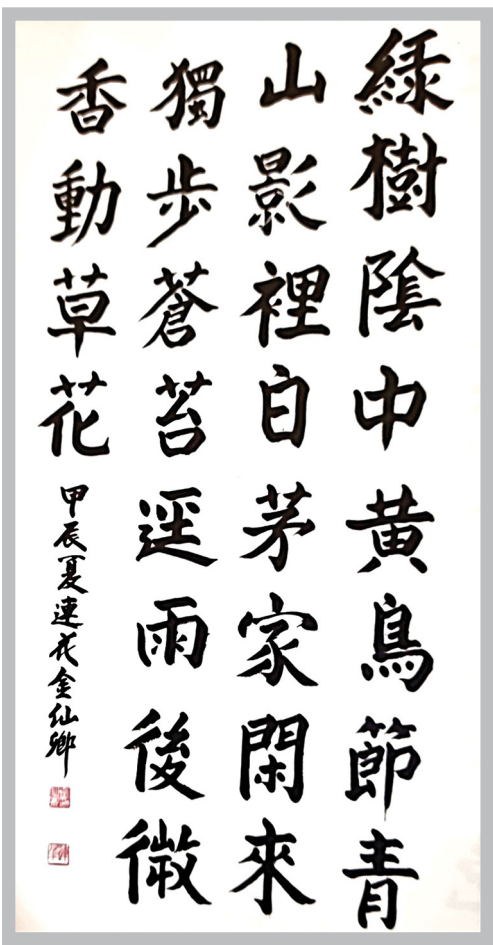
이슬이 술잔에 떨어지니
봄술이 더욱 향기롭구나.



綠樹陰中黃鳥節 青山影裡白茅家
閑來獨步蒼苔逕 雨後微香動草花
(녹수음중황조절 청산영리백모가
한래독보창태경 우후미향동초화)

연화(連花) 김선경

싱그러운 나무 그늘 속 피꼬리 우는 시절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단출한 초가집
이끼 낀 길을 한가로이 홀로 걸으니
비 끝에 은은한 향기 풀꽃에서 풍겨오네.



瑞氣滿高堂
(서기만고당)
성신(聖信) 김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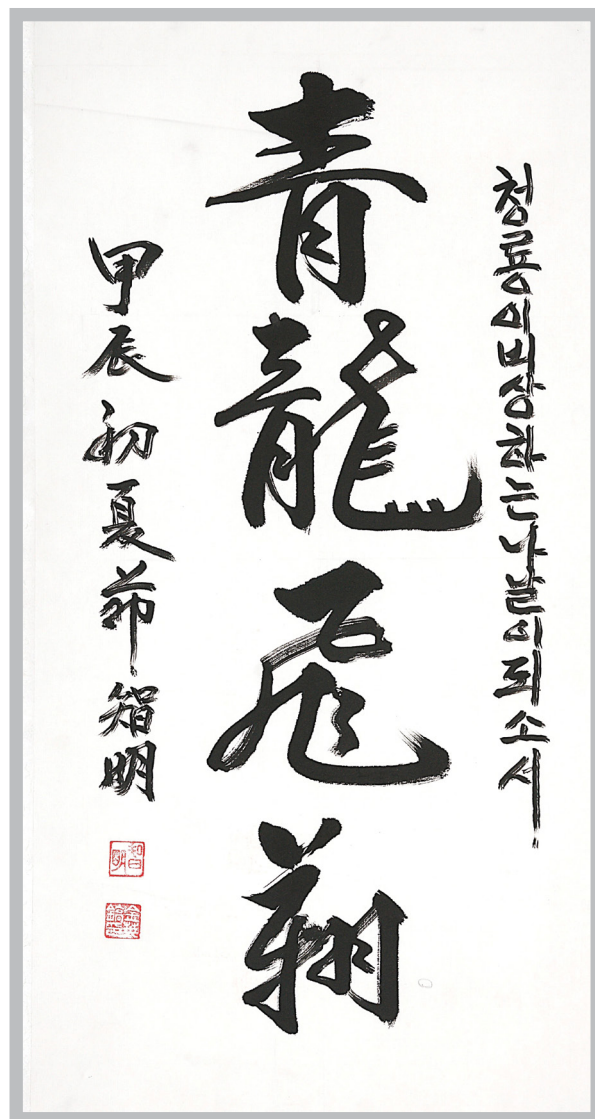
상서로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다



靑龍飛翔
(청룡비상)

지명(智明)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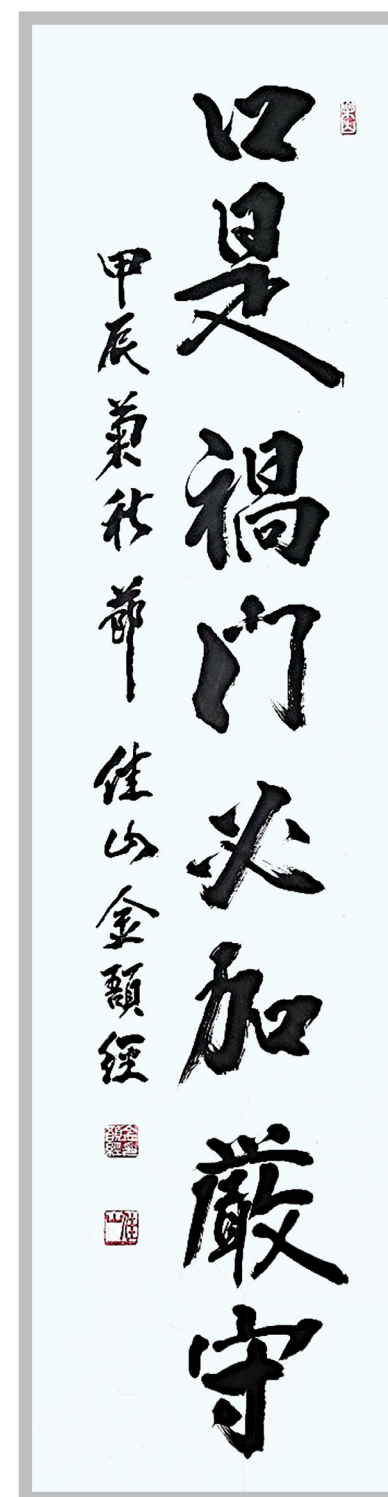
청룡이 비상하는 날이 되소서.



口是禍門 必加嚴守
(구시화문 필가암수)

가산(佳山) 김오경

입은 불행을 부르는 문이니 필히
엄하게 지키라.





種樹看花兼食實 積書教子又傳孫
(종수간화겸식실 적서교자우전손)

도헌(渡軒) 김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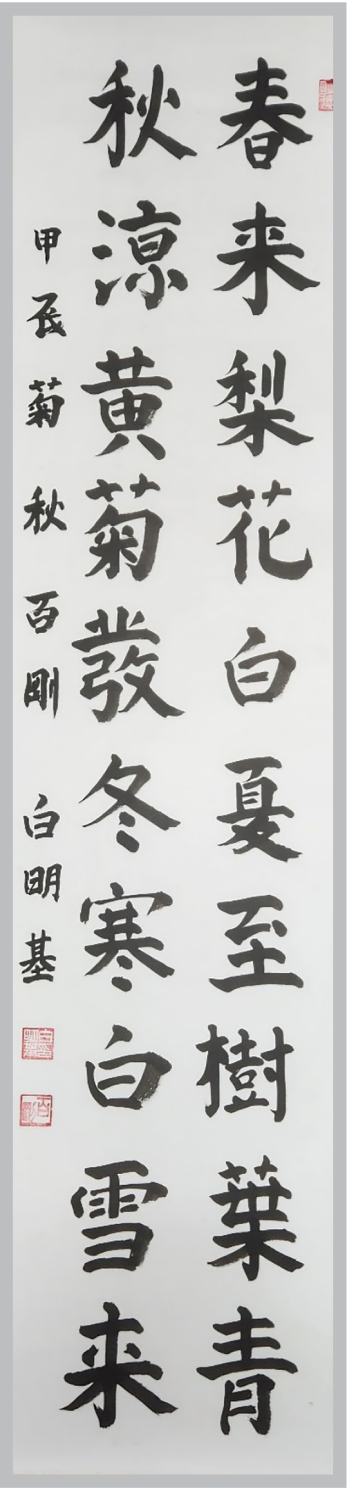
나무를 심어서 꽃도 보고 겸해서 열매도 먹고,
글을 쌓아서 아들을 가르치고
또 손자에게 전한다.



春來梨花白 夏至樹葉青
秋涼黃菊發 冬寒白雪來
(춘래이화백 하지수엽청
추량황국발 동한백설래)

백강(百剛) 백명기

봄이 오니 배꽃이 하얗게 피고
여름이 오니 나뭇잎이 푸르도다.
가을이 서늘하니 누런 국화가 피고
겨울이 추우니 흰 눈이 내리도다.





義重若泰山
(의중약태산)

수향(垂香) 이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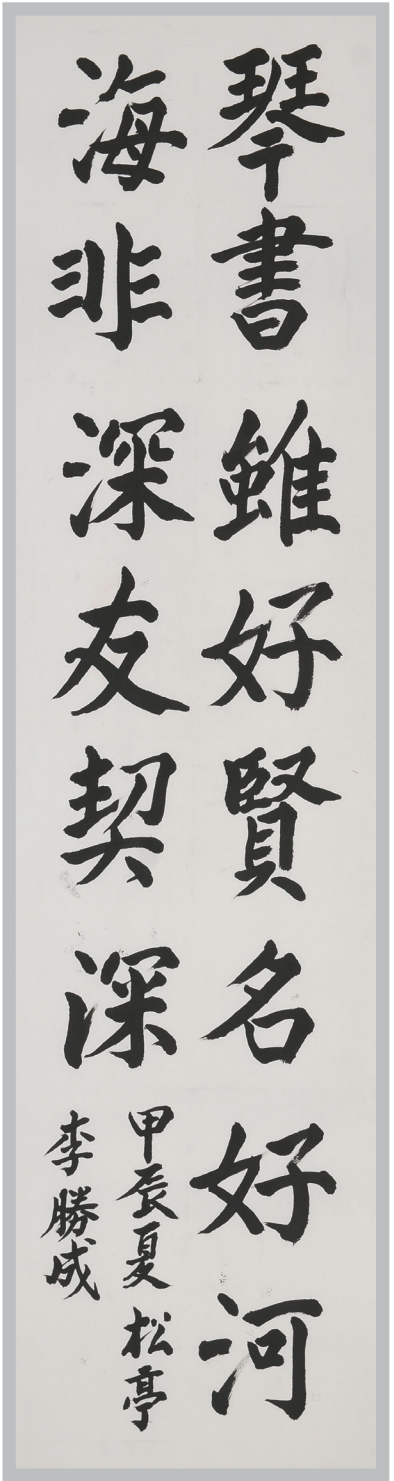
의를 태산과 같이 무겁게 생각하라



琴書雖好賢名好 河海非深友契深
(금서수호현명호 하해비심우계심)

송정(松亭) 이승성

금서가 비록 좋으나 어진 이름이 좋고
강과 바다가 깊은게 아니라
친구와 맺은 정이 더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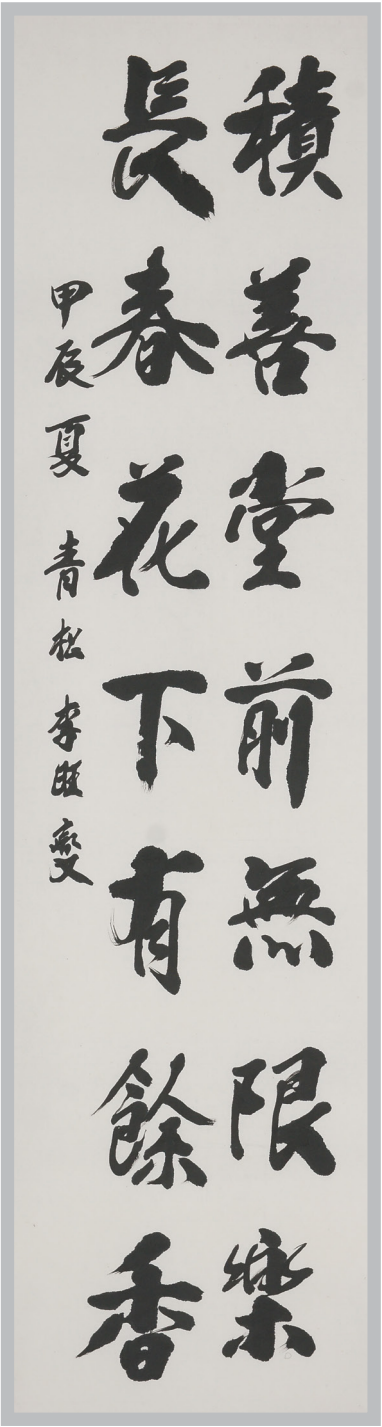




積善堂前無限樂 長春花下有餘香
(적선당전무한락 장춘화하유여향)

청송(靑松) 이왕섭

선을 쌓은 집 앞에 즐거움이 끝없고
긴 봄 꽃 아래엔 향기가 넉넉하네



鈍筆勝聰
(둔필승聰)

이정(耳丁) 정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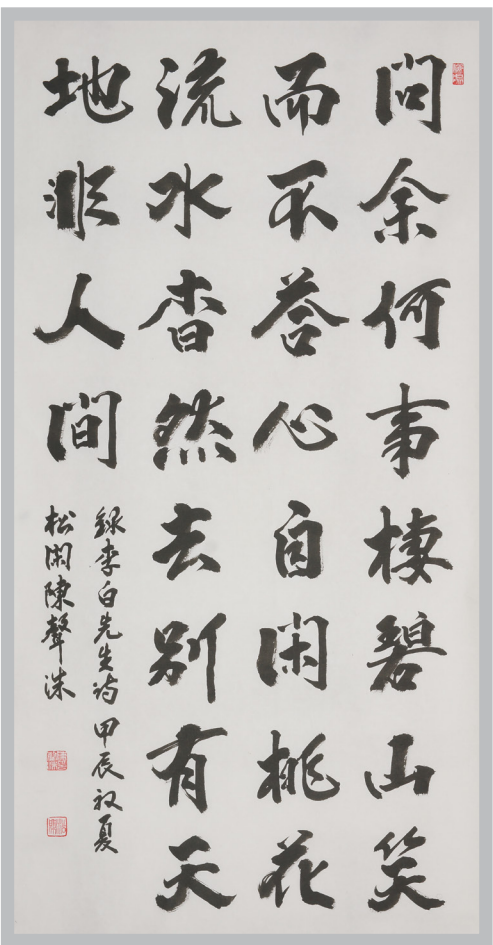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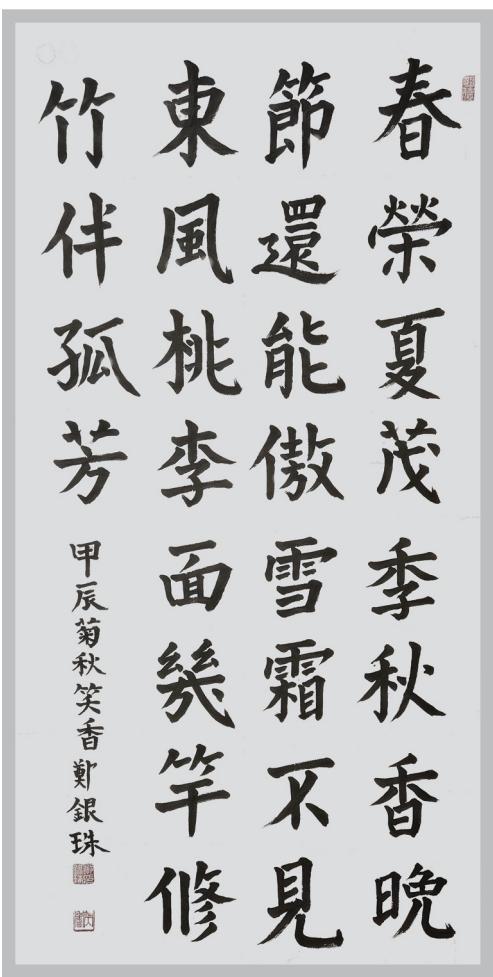
서툰 글씨라도 기록하는 것이 기억보다 낫다.



春榮夏茂季秋香 晚節還能傲雪霜
 不見東風桃李面 幾竿修竹伴孤芳
 (춘영하무계추향 만절환능오설상
 불견동풍도리면 기간수죽반고방)

소향(笑香) 정은주

봄에 성하고 여름에 우거져 가을에 향기로우니
 늦은 절기에 도리어 눈 서리 굽히지 않는다. 동
 풍에 피어나는 도리를 보지 않고 몇 그루
 수죽은 국화를 짝한다.



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문여하사서벽산 소이부답심자한
 도화유수묘연거 별유천지비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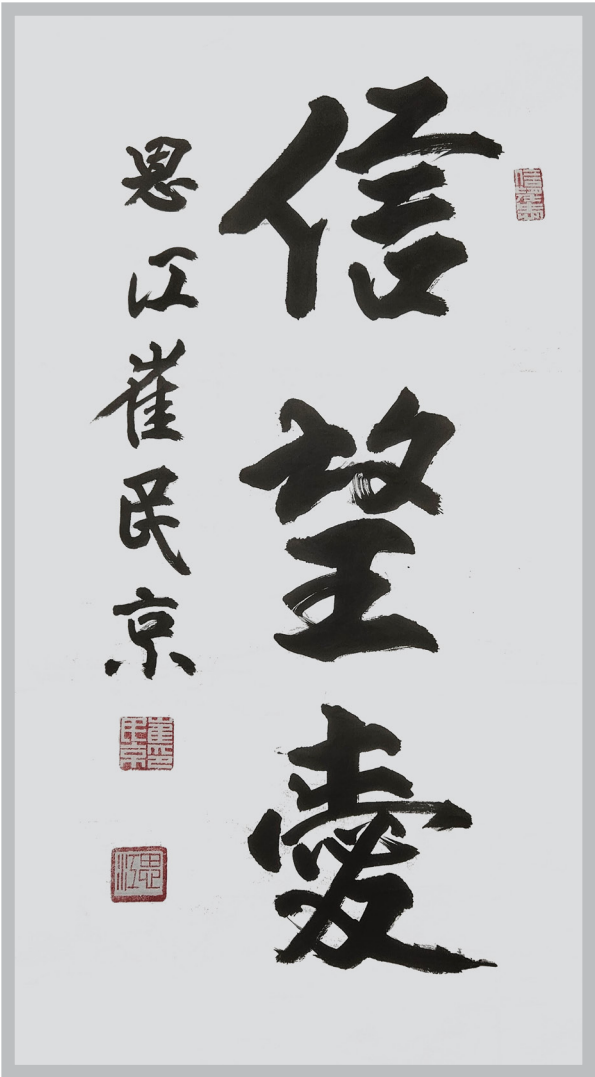
송한(松閑) 진성수

나에게 무슨 일로 푸른 산에서 사냐고 묻는다면
 웃으며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평화롭다네.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에 아득히 떠내려가고
 다른 세상이 있으니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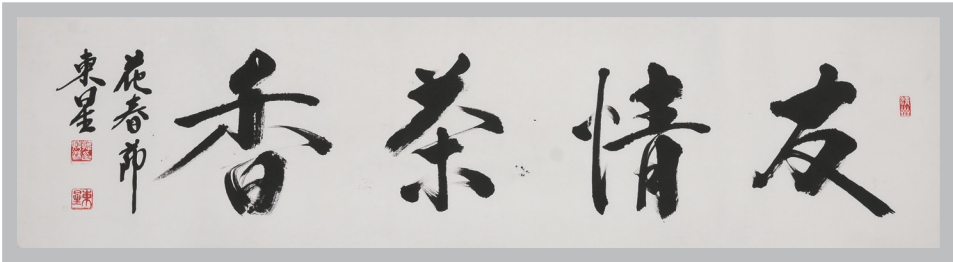
信望愛
(신망애)
은강(恩江) 최민경

믿음, 소망, 사랑



友情茶香
(우정다향)
동성(東星) 한은수

차의 향은 천리를 가고
벗의 정은 만년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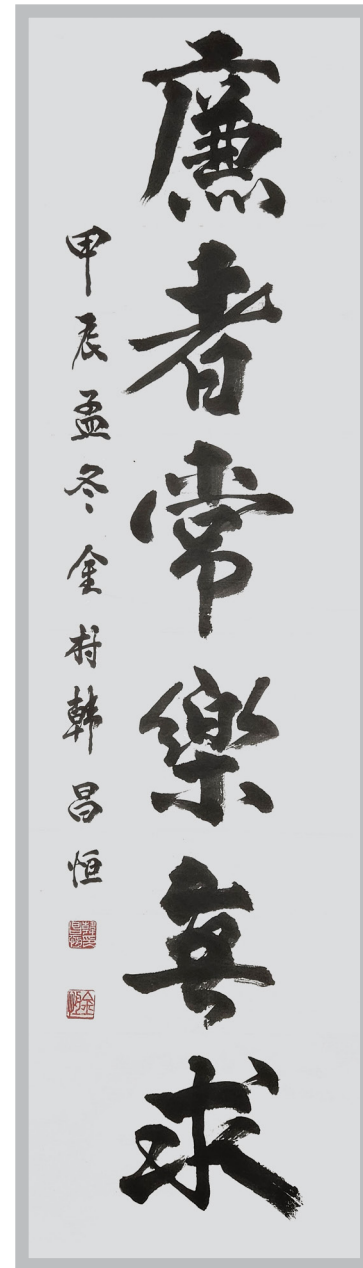




廉者常樂無求
(염자상락무구)

금촌(金村) 한창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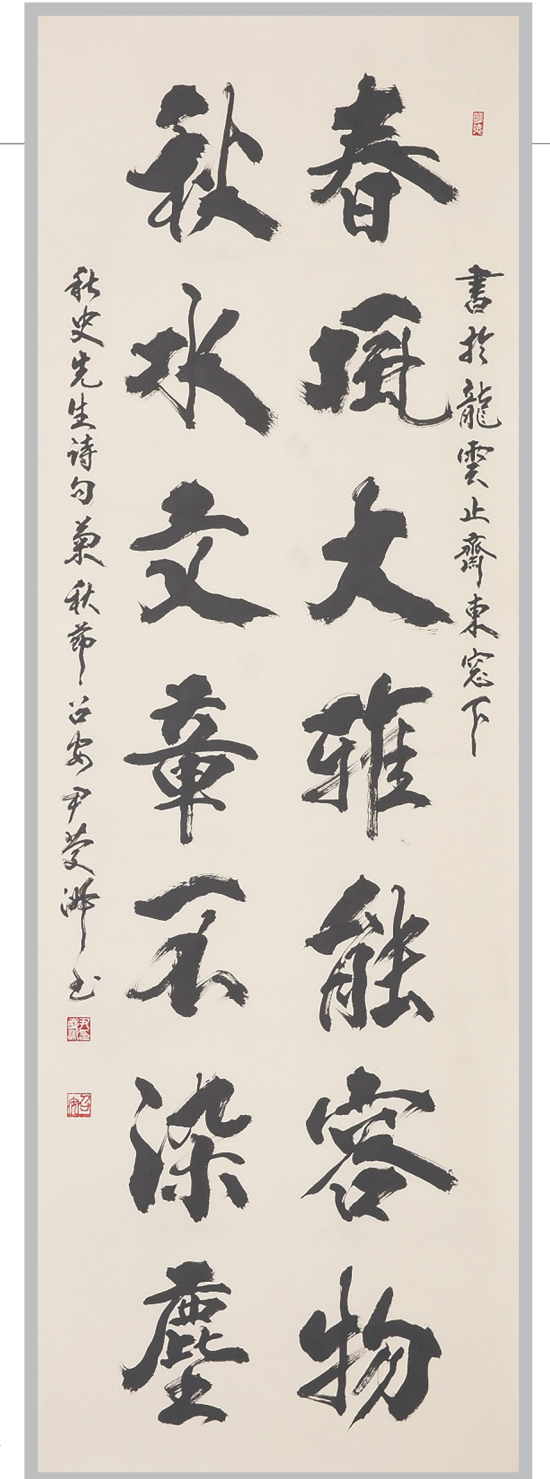
청렴한 사람은 구함이 없으니 항상 즐겁다.



화요서예 강사찬조작품



소안(講師/召安) 윤경숙



春風大雅能容物 秋水文章不染塵
(춘풍대아능용물 추수문장불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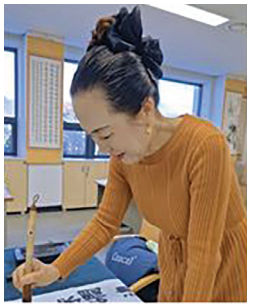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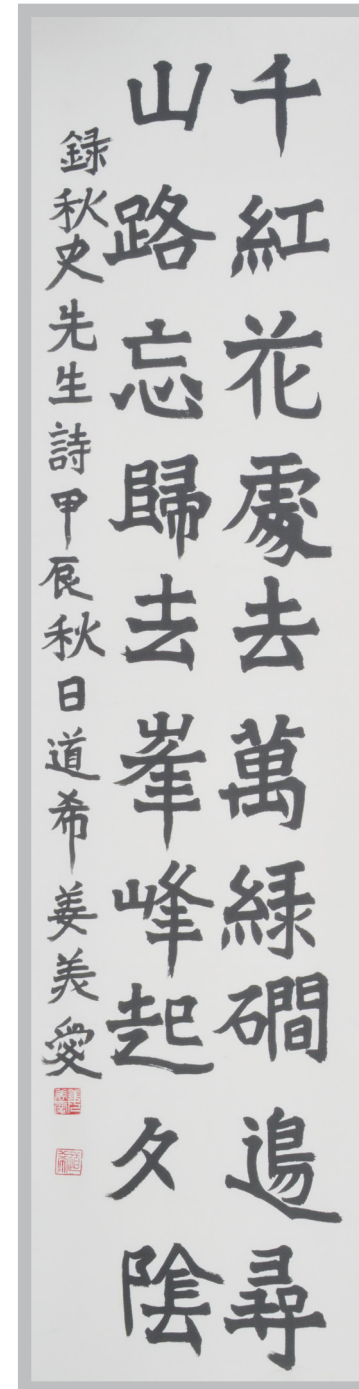
봄바람처럼 큰 부드러움은 능히 만물을 포용하고
가을 물같이 맑은 문장은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목요서예

지도강사 장운정

출품회원	강미애	원숙자	장석묵
	김월묵	이계순	장원풍
	김정숙	이만선	정동희
	박경숙	임재풍	
	박현행	장석돈	



秋史先生詩
(추사선생시)

도희(道希) 강미애

千紅花處去(천홍화처거)
: 붉은 꽃 수두룩하게 핀 곳으로 가서

萬綠礪邊尋(만록간변심)
: 여름철의 푸른 숲 산골짜기 물가를 찾아보네.

山路忘歸去(산로망귀거)
: 산길이라 돌아가는 것 잊었는데

峯峰起夕陰(봉봉기석음)
: 봉우리마다 저녁 어스름이 피어오른다.



千字文句
(천자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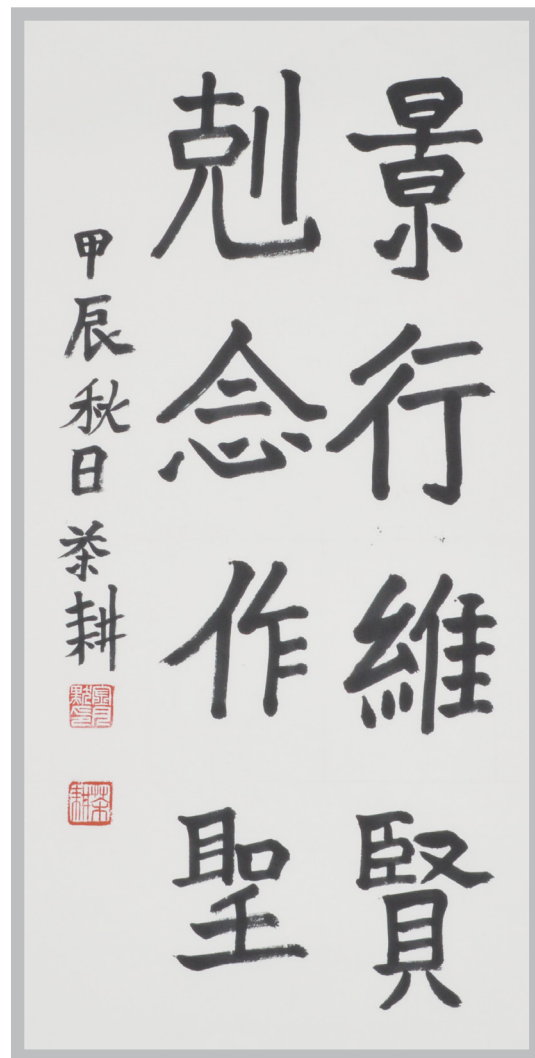
다경(茶耕) 김월묵

景行維賢(경행유현)

: 행동을 빛나게하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요

克念作聖(극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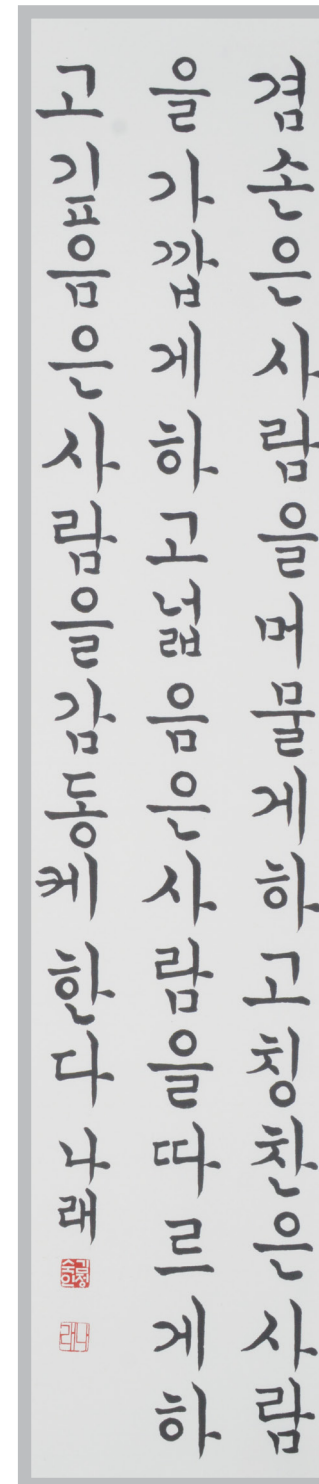
: 힘써 마음에 생각하면 성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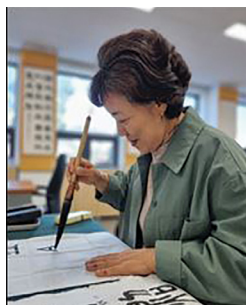


정약용 어록

나래 김정숙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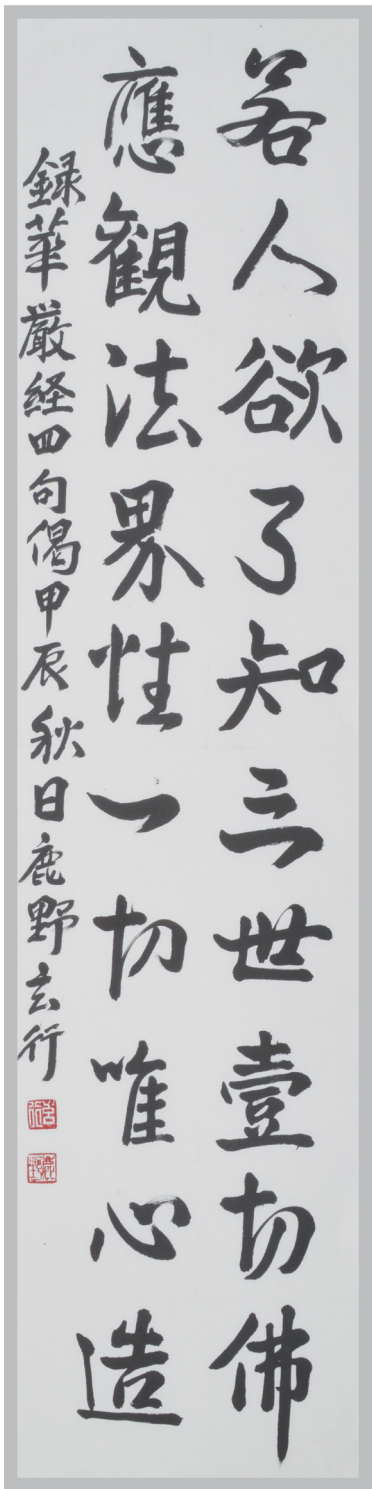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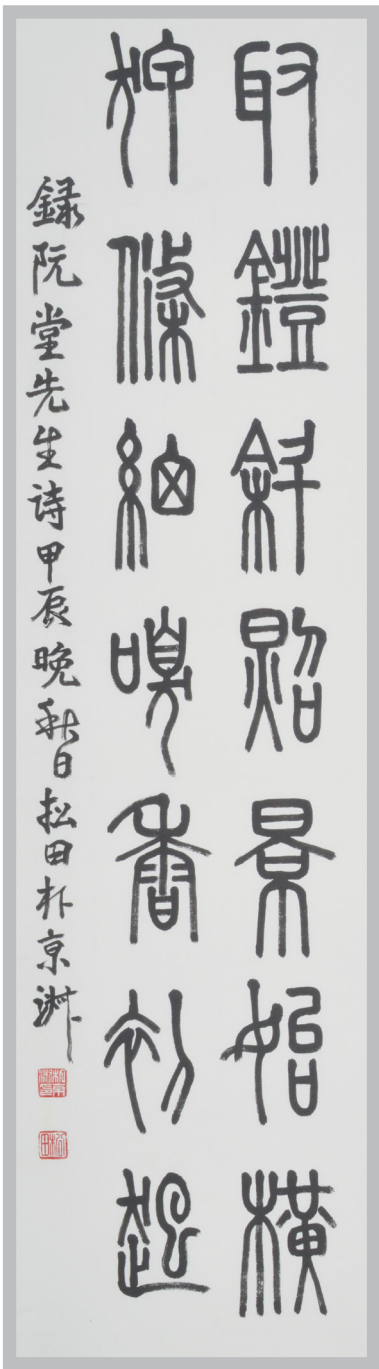


秋史(阮堂) 先生詩
(추사(완당) 선생시)

송전(松田) 박경숙

取橙斜照影始橫(취등사조영시횡)
: 비스듬히 등 비추니 그림자 가로 나고

押條細嗅香初起(압조세후향초기)
: 가지 곁에 코를 대니 향기 처음 풍기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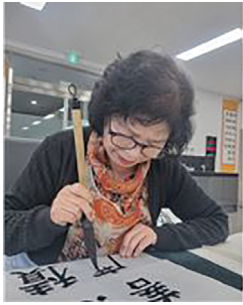


華嚴經 四句偈
(화엄경 사구게)

녹야(鹿野) 박현행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약인욕료지 삼세일체불)
: 만일 사람들이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 응당법계의 모든 성품이 오직 마음이
지은 것임을 관할지니라.



千字文句
(천자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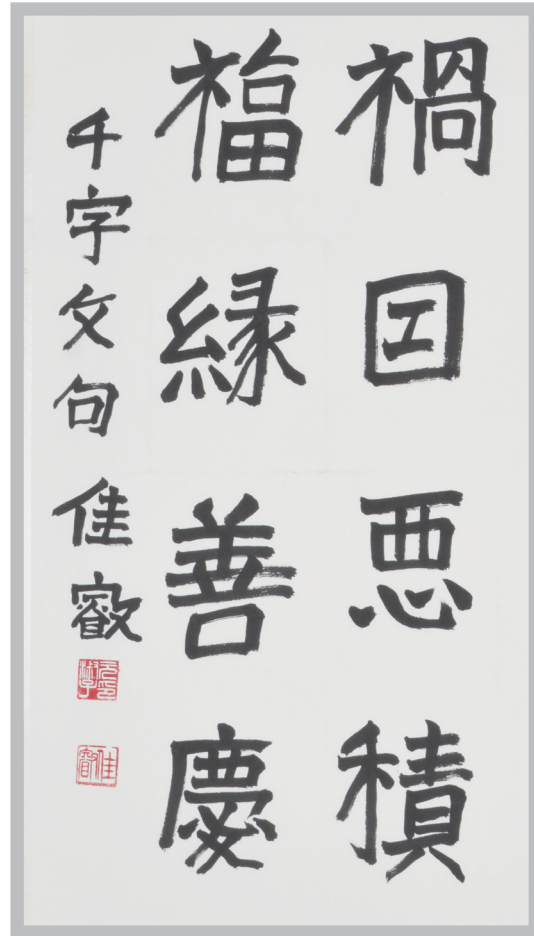
가예(佳叡) 원숙자

禍因惡積(화인악적)

: 악한 일을 하는 데서 재앙은 쌓이고

福緣善慶(복연선경)

: 착하고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서 복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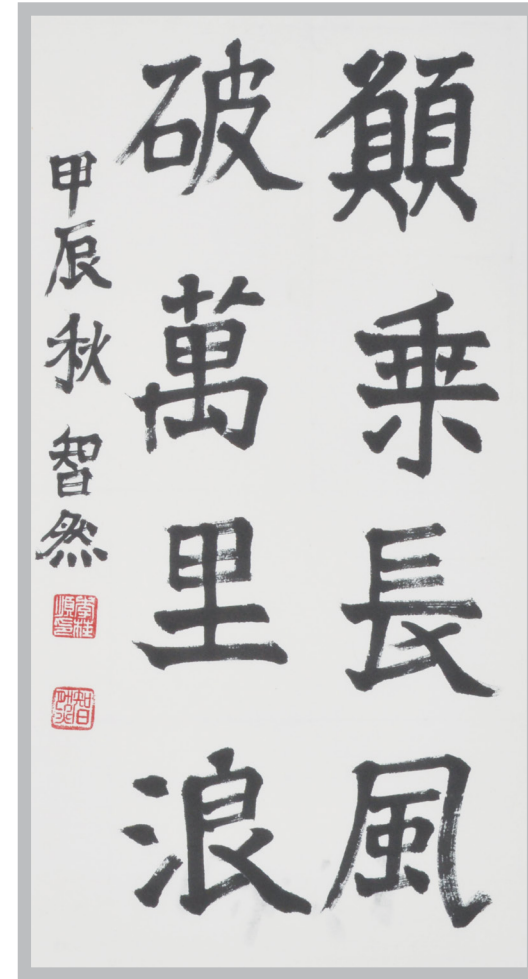


故事成語 句
(고사성어 구)

지연(智然) 이계순

願乘長風 破萬里浪(원승장풍 파만리랑)

: 거센 바람을 타고 만 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고 싶다.





李白 詩 山中問答
(이백 시 산중문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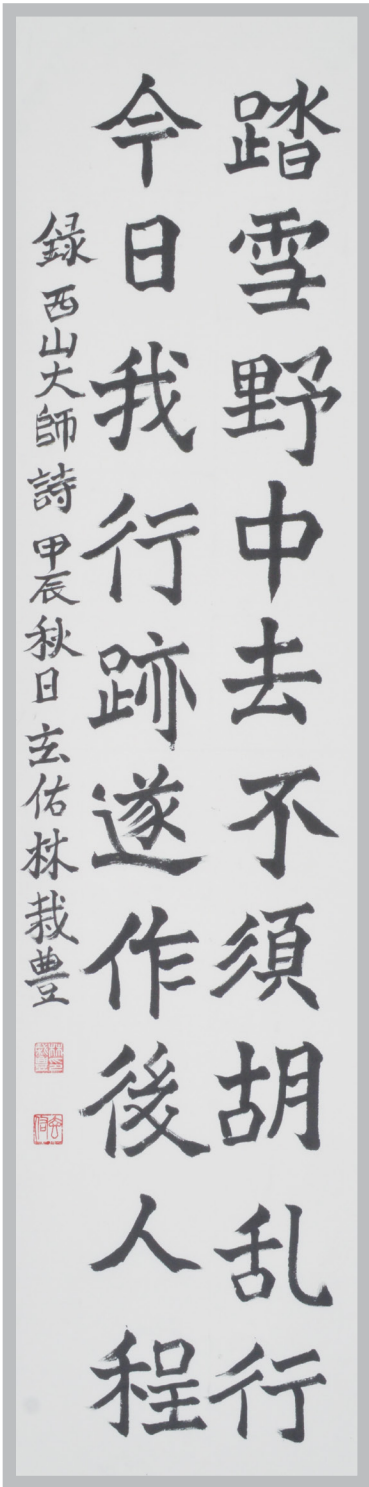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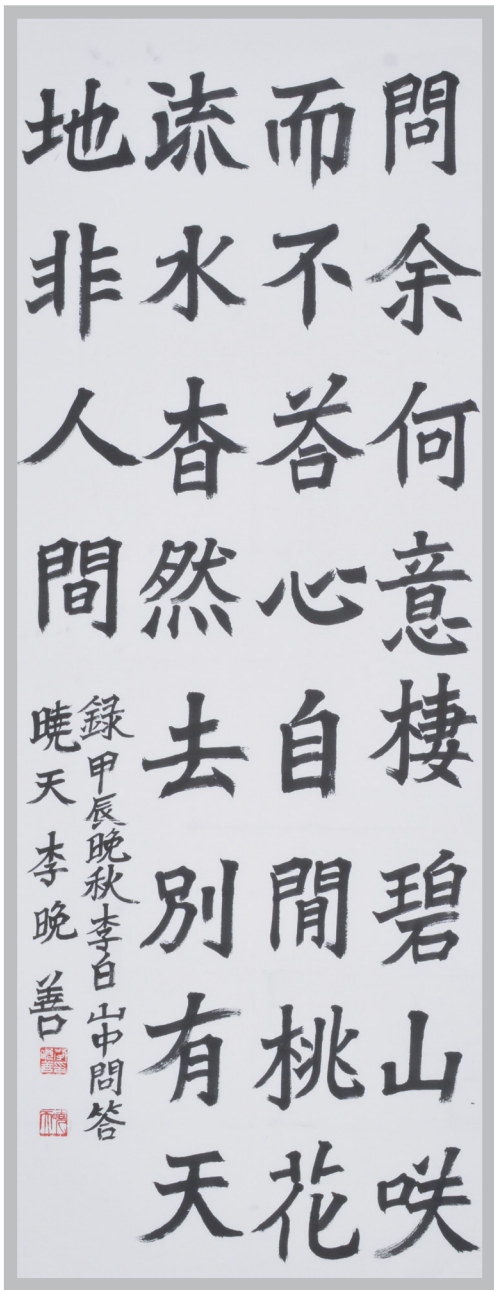
효천(曉天) 이만선

問余何事棲碧山(문여하사서벽산)
: 묻노니, 그대는 왜 푸른 산에 사는가

笑而不答心自閑(소이부답심자한)
: 웃을 뿐, 답은 않고 마음이 한가롭네

桃花流水杳然去(도화유수묘연거)
: 복사꽃 띄워 물은 아득히 흘러가나니

別有天地非人間(별유천지비인간)
: 별천지일세, 인간 세상 아니네



西山大師詩 踏雪
(서산대사시 답설)

현우(玄佑) 임재풍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내린 들판 한가운대를 걸어갈 때는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야행적)
: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것이다.



法句經 句
(법구경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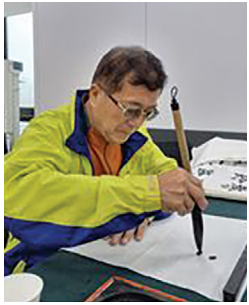
송산(松山) 장석돈

輕躁難持(경조난지)
: 마음은 가벼워 지키기 어려운것

唯欲是從(유욕시종)
: 오직 욕망을 따라간다

制意爲善(제의위선)
: 마음을 다스림은 훌륭한일

自調則寧(자조능녕)
: 스스로 다스리면 곧 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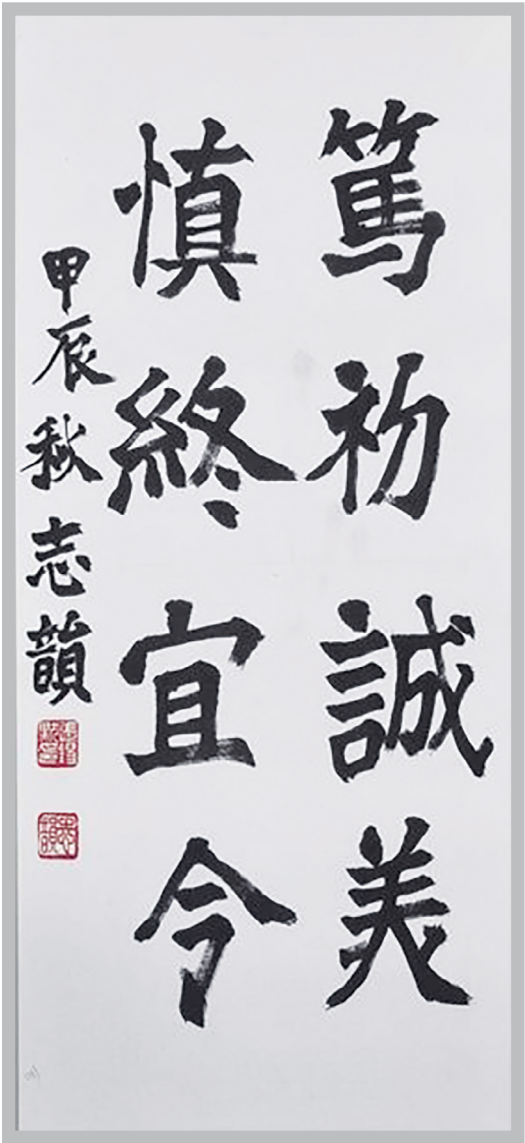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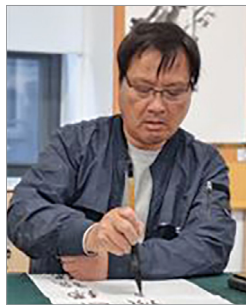
千字文句
(천자문구)

지운(志韻) 장석묵

篤初誠美(독초성미)
: 처음을 독실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慎終宜令(신종의령)
: 끝맺음을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다.





秋史先生詩
(추사선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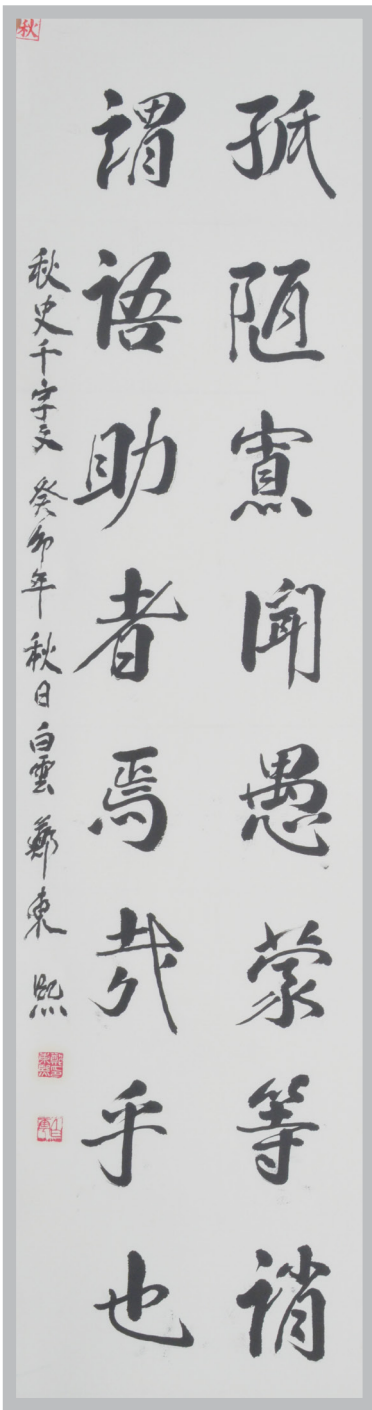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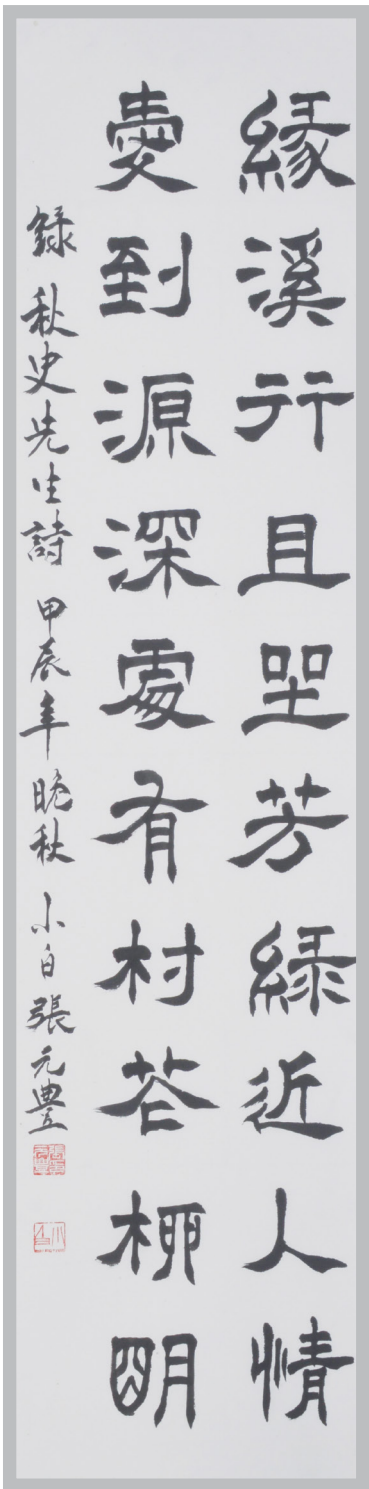
소백(小白) 장원풍

緣溪行且坐(연계행차좌)
: 시내를 타고가다 살짝 앉으니

芳綠近人情(방록근인정)
: 인정을 사로잡는 곱고 푸르름

愛到源深處(애도원심처)
: 사랑 겨워 근원 깊은 곳에 이르니

有村花柳明(유촌화유명)
: 꽃과 버들 밝아라 마을이 있네.



千字文句
(천자문구)

백운(白雲) 정동희

孤陋寡聞(고루과문)
: 혼자서 공부하면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여

愚蒙等誚(우몽등초)
: 몽매한 자와 같아서 남의 책망을 듣게 마련이다

謂語助者(위어조자)
: 어조사라 이르는 말에는

焉哉乎也(언재호야)
: 언(焉), 재(哉), 호(乎), 아(也)가 있다.



목요서예 강사찬조작품



향은(香隱) 장윤정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대상,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역임 ·
대전·충남 서예전람회 대상수상,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역임 ·
추사김정희 선생추모서예백일장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역임 ·
농업인 서예대전 우수상 수상 초대작가 ·
사) 한국서가협회 충남지회 이사, (사) 서예총연합회 충남지회 이사 ·
신도시평생학습관 목향 담은 현대 서예 강사 ·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한문 서예 강사 ·
예산문화원, 예산농협, 예산군여성회관 서예 강사 ·

錦石 朴準源 先生 詩 看花 (금석 박준원 선생 시 간화-꽃을보며)

世人看花色(세인간화색)
: 세상 사람 꽃의 빛깔을 볼때

吾獨看花氣(오독간화기)
: 나는 홀로 꽃의 기운을 본다.

此氣滿天地(차기만천지)
: 그 기운 천지에 가득 찰 때면

五亦一花卉(오역일화훼)
: 나도 또한 한 송이 꽃이 된다.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한국화

지도강사 주경숙

출품회원	김미숙	박명남	정미경
	김승한	박상훈	최한구
	나 겸	박희숙	하현숙
	류희용	임경숙	황선희



예당 I
김미숙



예산 그 아쉬움
김승한





묵(墨)의 표현
나겸



꽃의 향연
류희용





비자림
박명남



외갓집 가는 길
암천(巖泉) 박상훈





그리움으로에 초대
박희숙



청송(靑松)
온샘 임경숙





우산 속 이야기
정미경



텅 빈 낚시
최한구





노을 진 블레드 섬
황선희

친구와 함께 동유럽 여행 중 땅거미가 내려 앉은 슬로 베니아 블레드 섬이 너무 감동이어서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느린 마을
하현숙



한국화 강사찬조작품



주경숙

솔뫼의 봄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문인화

지도강사 김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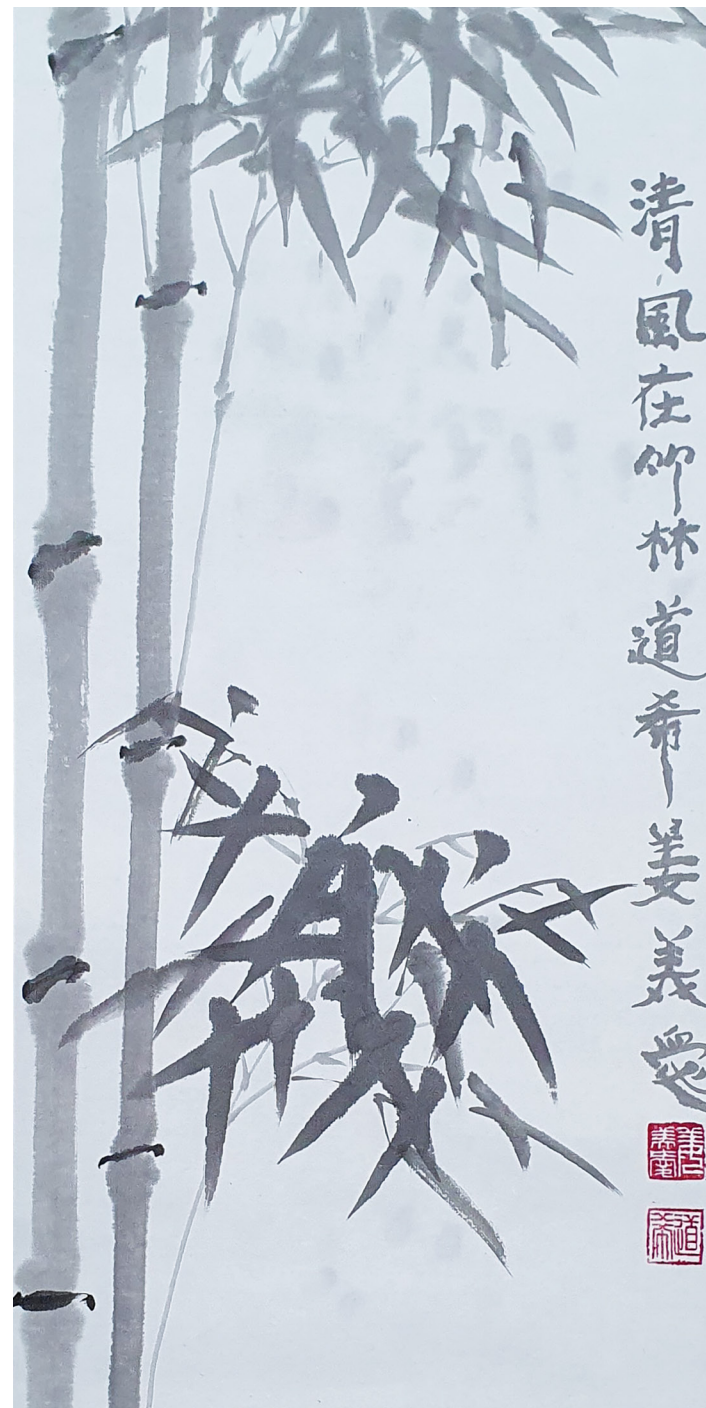
출품회원	강대식	박현행	이서연
	강미애	오주원	이진주
	김영희	유명자	최한구
	김집순	윤영순	



향중별유운(香中別有韻)

덕은 강대식

향기중에 유별한 운치(정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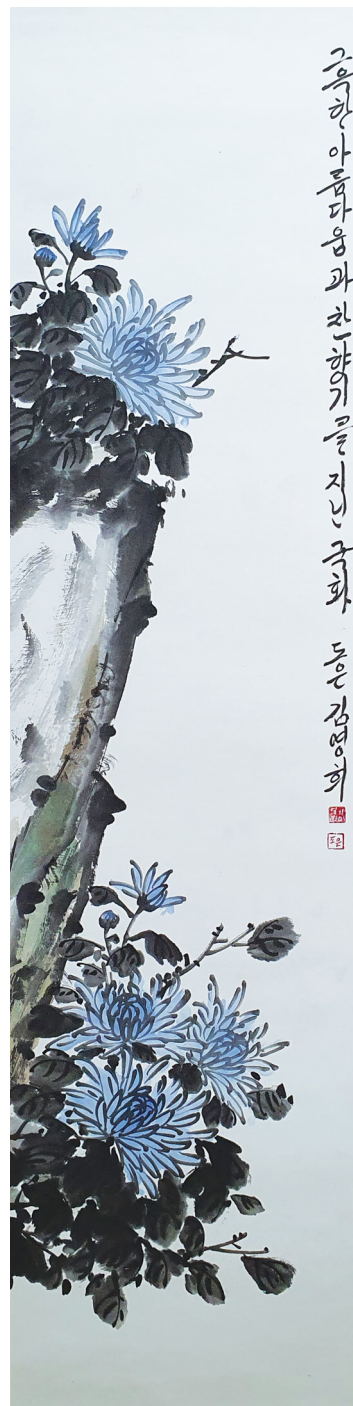


대나무

도희 강미애



가을향기(국화)
도은 김영희



매화향기
고월 김집순



가을향기(秋色)

녹야 박현행

들국화가 가을바람에 더욱 향기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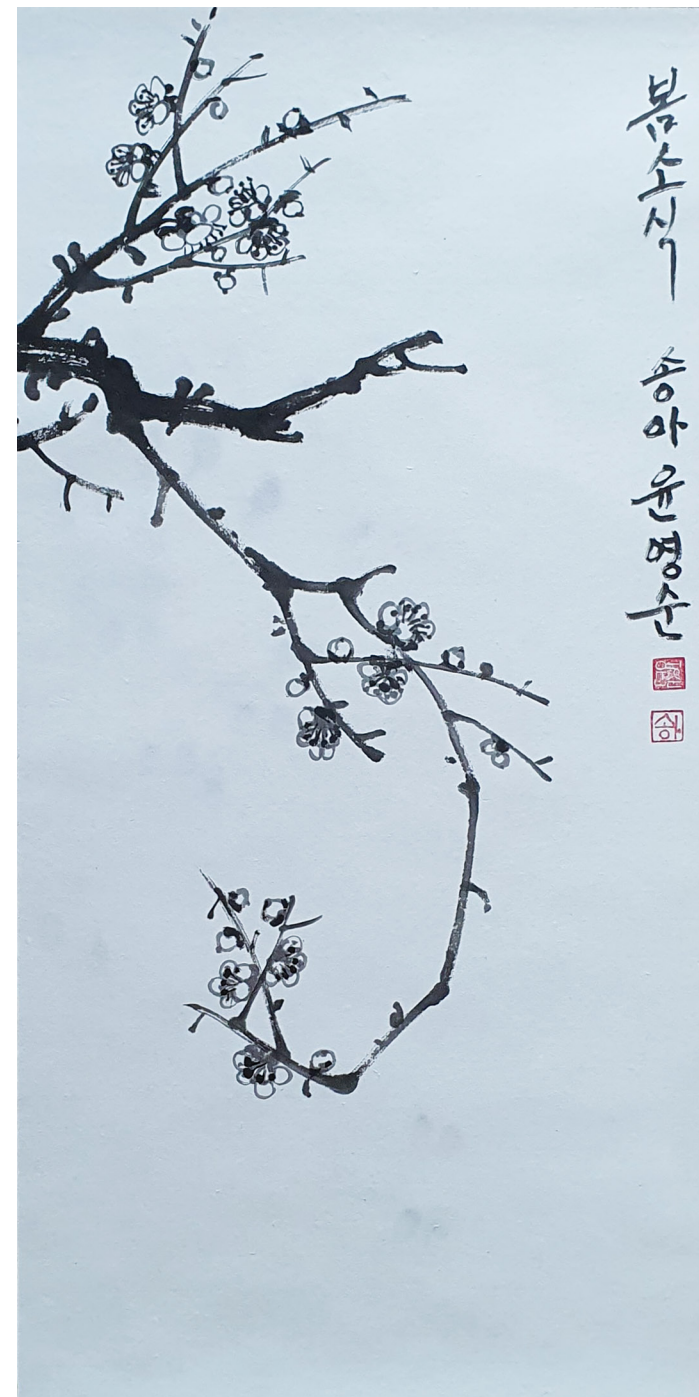


대나무

의재 오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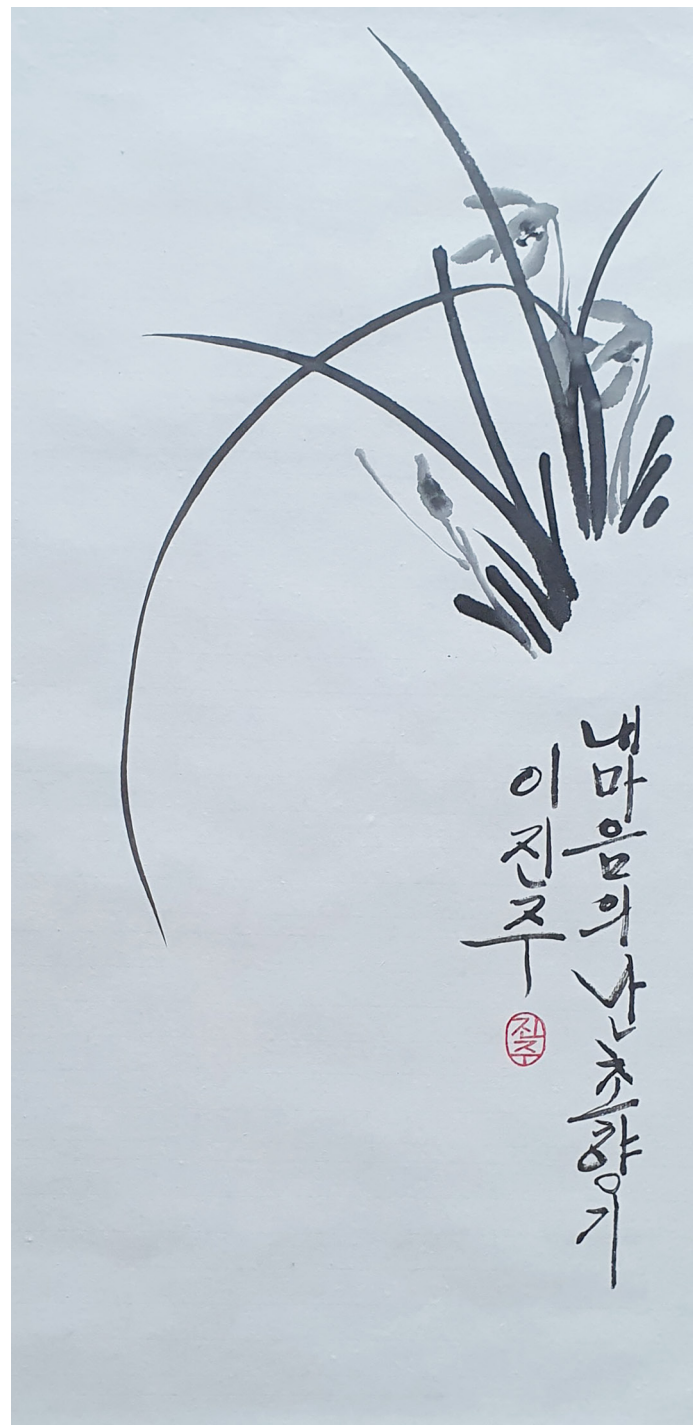
홍매화
늘봄 유명자



봄소식 (매화)
송아 윤영순



난
우향 이서연



내 마음의 난초향기
지현 이진주



난향천리 인향만리
산천(山川) 최한구

난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문인화 강사찬조작품



송춘 김호숙



봄소식을 알리는 자목련

花紫葉青滿院開(화자엽청만원개)
: 자주 빛 꽃과 잎이 가득한 집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민화

출품회원 김남선 이찬영
 김미예 이채은
 박인숙 임정임
 안명애 전미남
 유은영 정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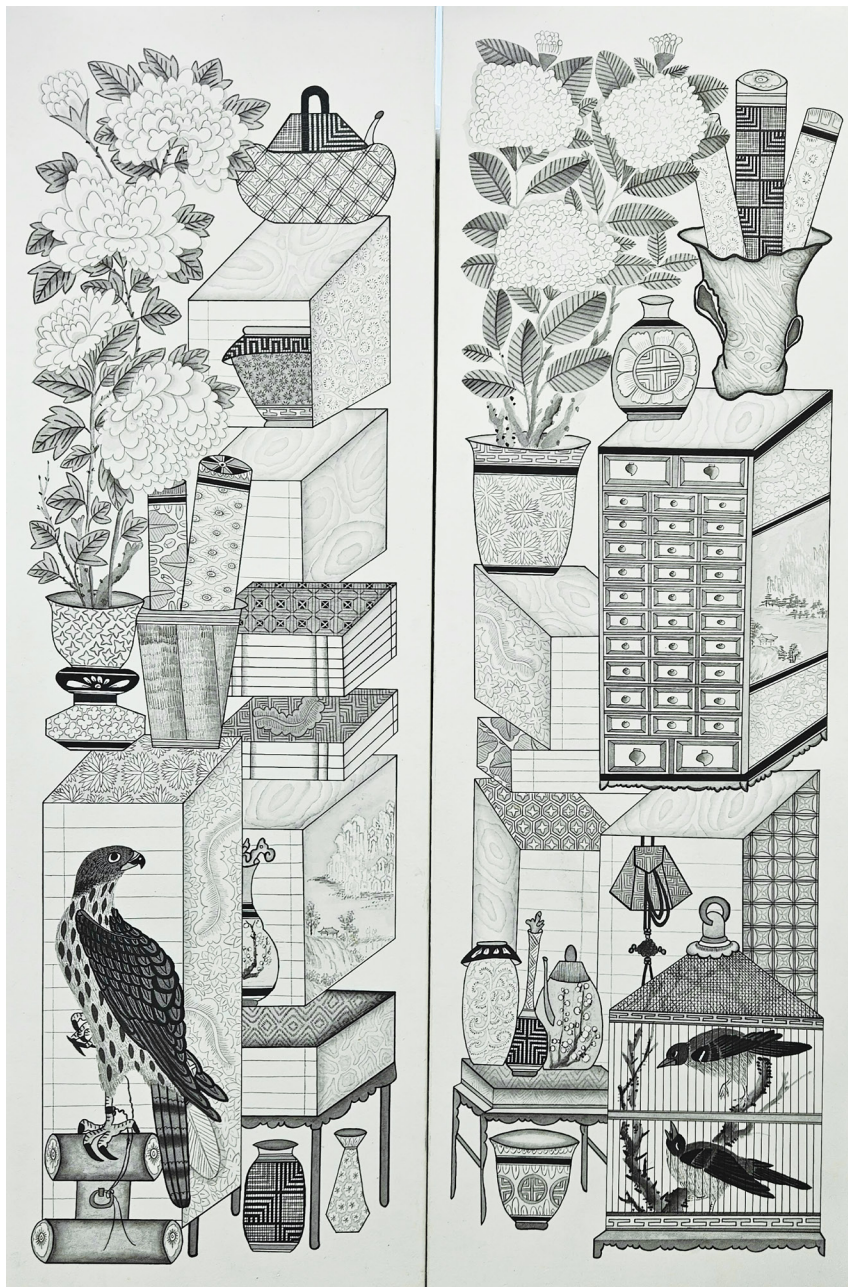
운룡도
김남선

순지, 수간분채



책가도
김미예

장지, 수간분채



호암화병도
박인숙

순지, 수간분채





노안도

안명애

순지, 수간분채



하화청정

유은영

순지, 수간분채





일월오봉도
이찬영

순지, 수간분채



병모란도
이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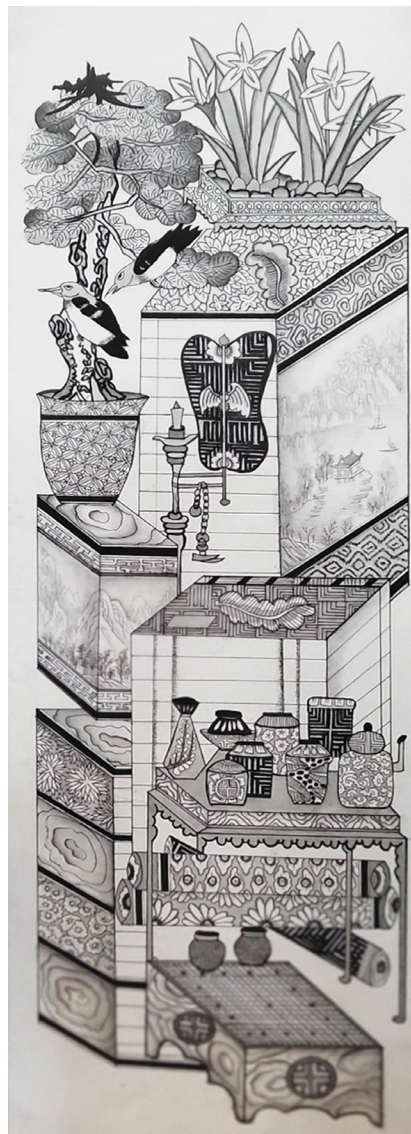
순지, 수간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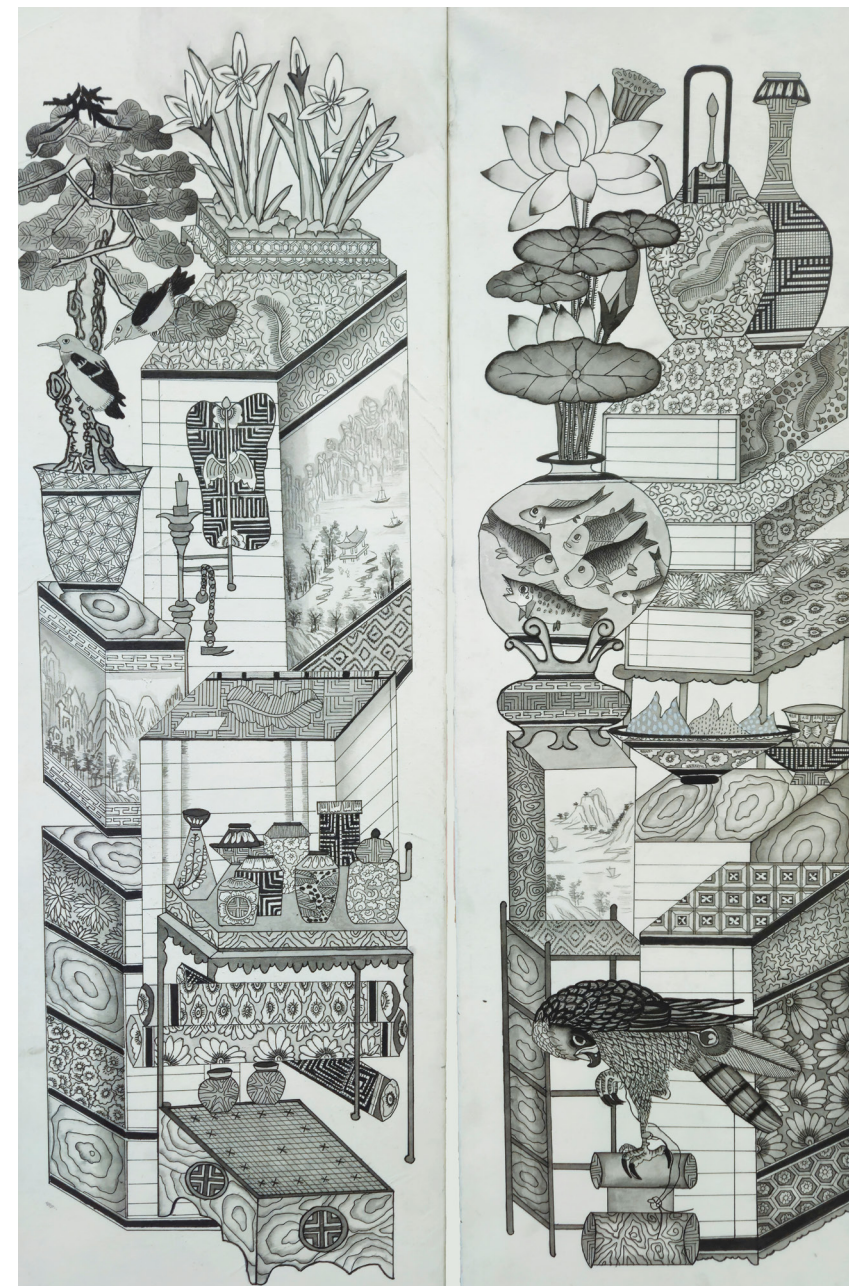
책가도
임정임

장지, 수간분채



책가도
전미남

장지, 수간분채





초충도
정은경

순지, 수간분채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수채화기초

출품회원 박미경
유은영
이종남
전병희
최정아



시간

박미경

계절과 계절이
넘나드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



제주도 정방폭포

유은영

여름날의 휴가





계절의 열매

이종남

봄에는 파랗게 움트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누렇게 익어라 그리고
겨울에는 말문을 닫고
안으로 여물어라



서설

전병희

아무도 넘지않은 눈길





그리움을 담고 최정아

담은 것이 많아 꽃에.
향기가 난다.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수채화중급

출품회원	가영옥	박은자	이찬영
	권영숙	서인애	장숙희
	김계숙	여명진	장혜숙
	김인수	이명구	전용순
	박예진	이순희	



감사

가영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렘

권영숙





겨울속으로

김계숙

가을의 화려함을 뒤로 하고
눈 쌓인 쓸쓸한 모습의
겨울 자작나무 숲



접시꽃 당신

김인수

고향집 장독대에
접시꽃 심으시던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리다





너만 바라봐

박예진

부를 가져다 준다는 해바라기 꽃의 밝은 기운과
따뜻함을 표현함



화사한 봄날

박은자

화사한 봄날의 만개한 꽃





메밀꽃 피는 마을

서인애

바닷가 고향마을에 메밀꽃이 피었다



황혼

여명진

저녁 노을의 황홀함에 취하여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





호수의 향연
이명구

고요한 호수에 수련의 아름다운 자태가
화려한 한낮



참새의 겨울나기
이순희

눈 오는 날의 참새 겨울나기





이국의 가을
이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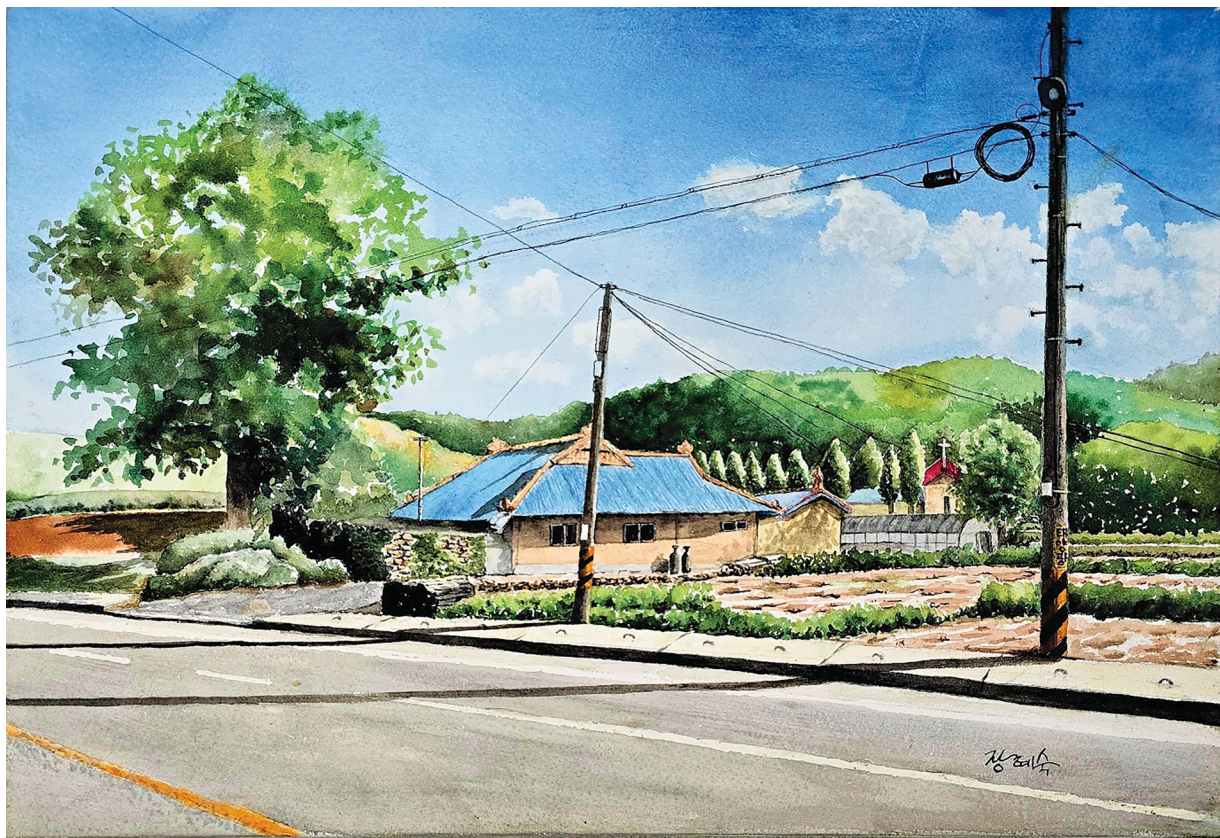


가을의 향기
장숙희





신작로 옆 시골 집
장혜숙



다시 봄
전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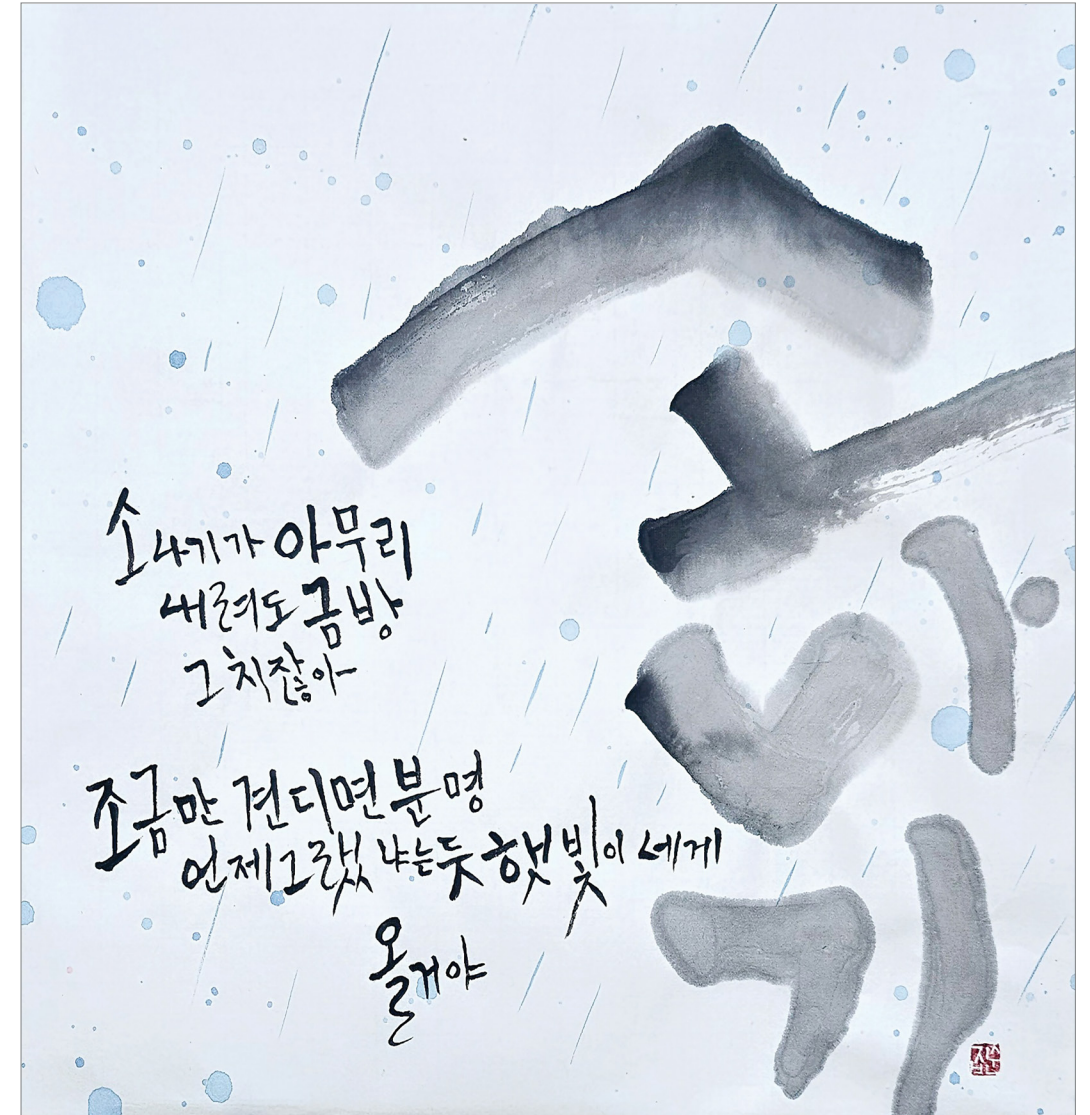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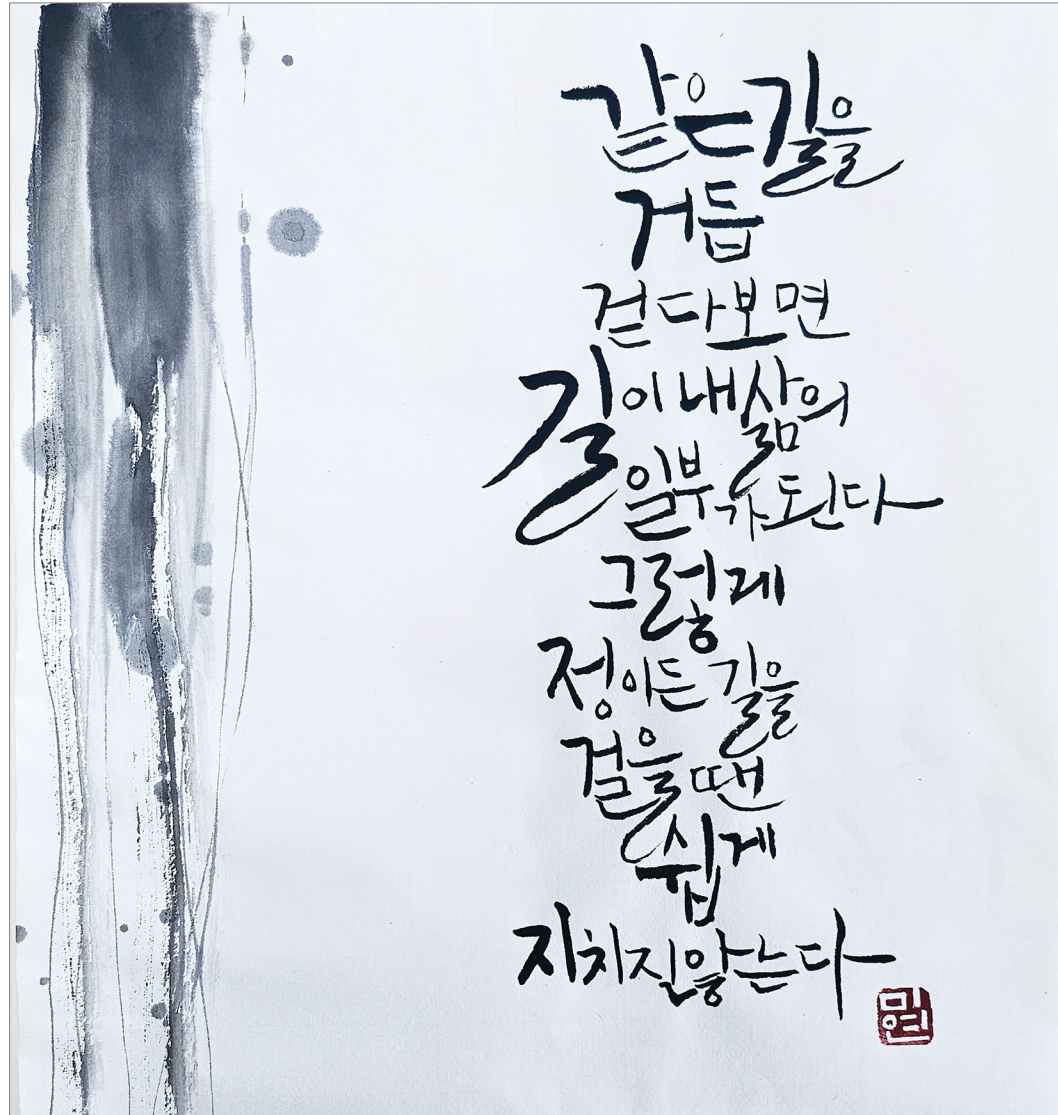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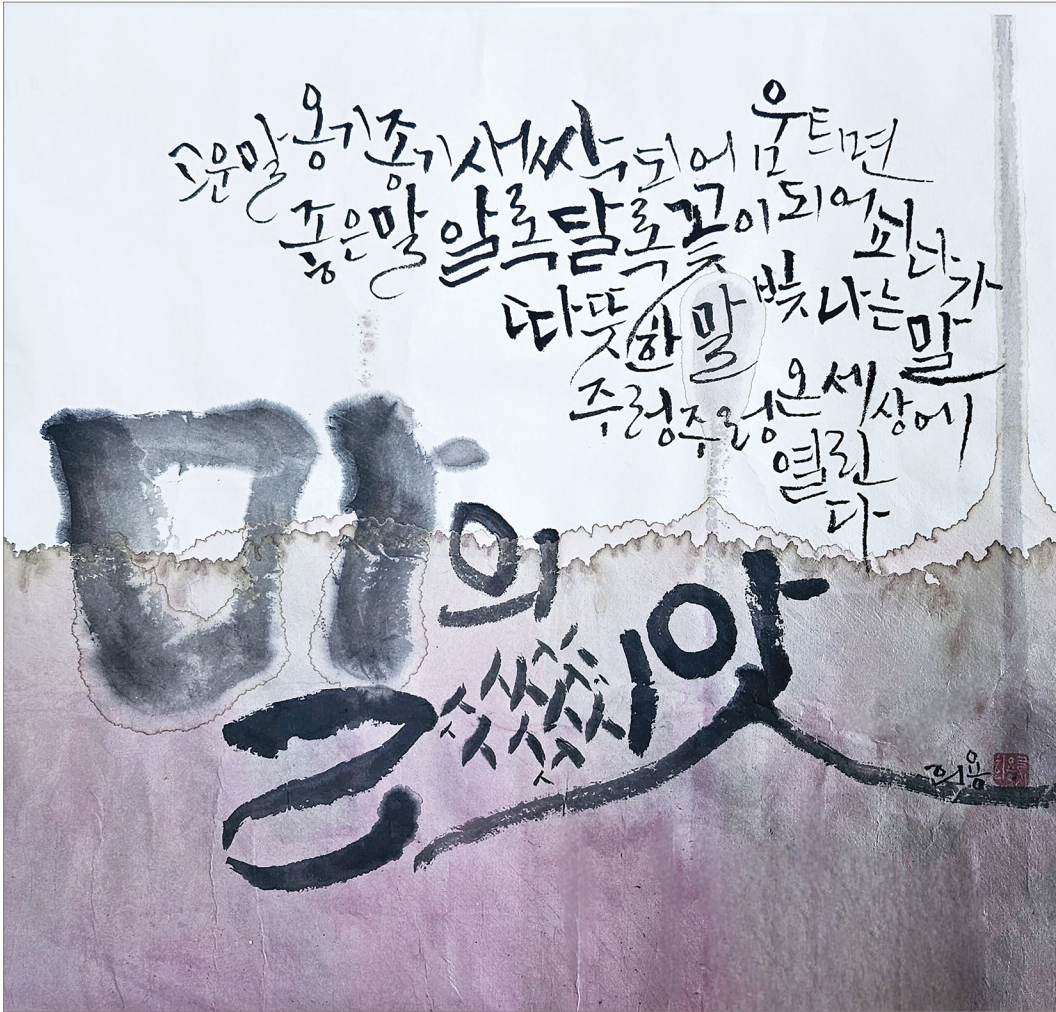
출품회원	가영옥	박영미	윤용순
	김미연	백은하	이동우
	김집순	소유순	전미남
	류희용	송숙희	

빛
가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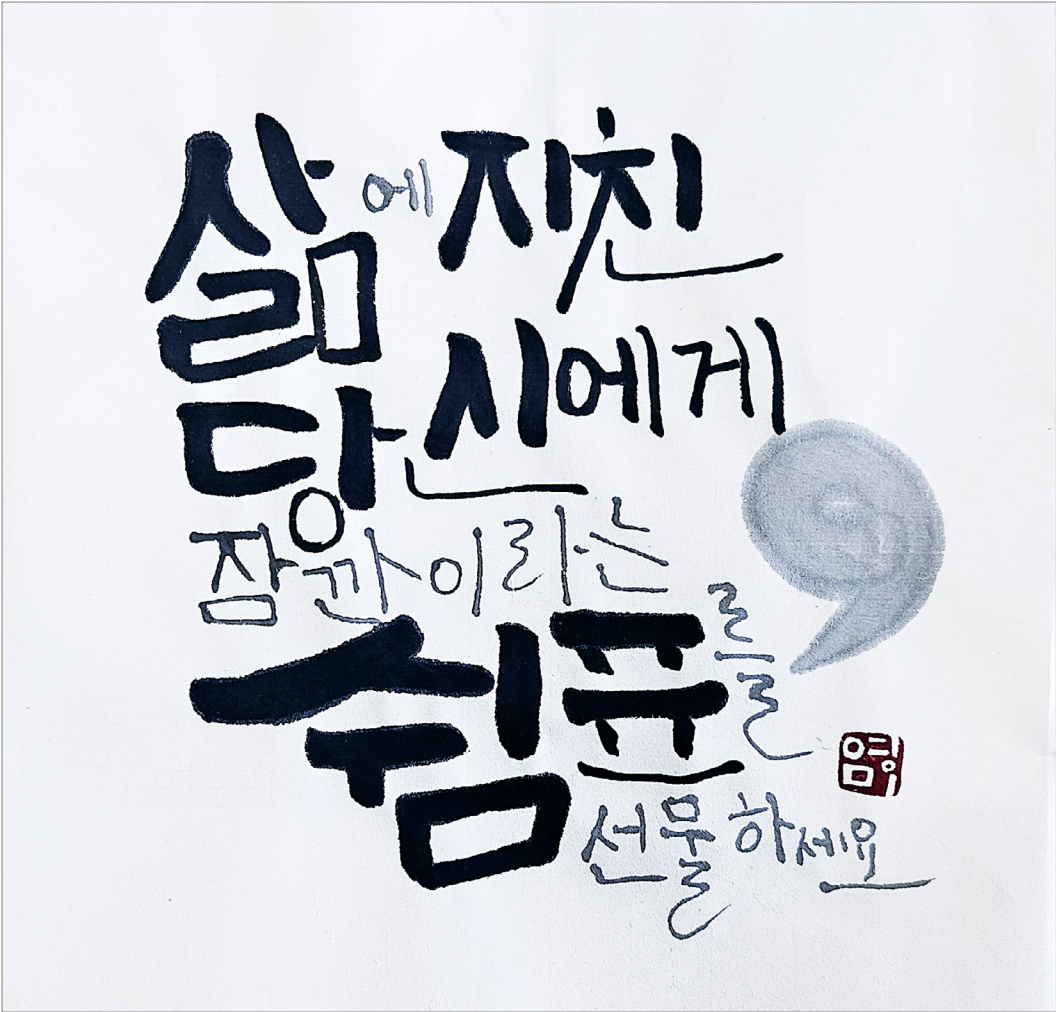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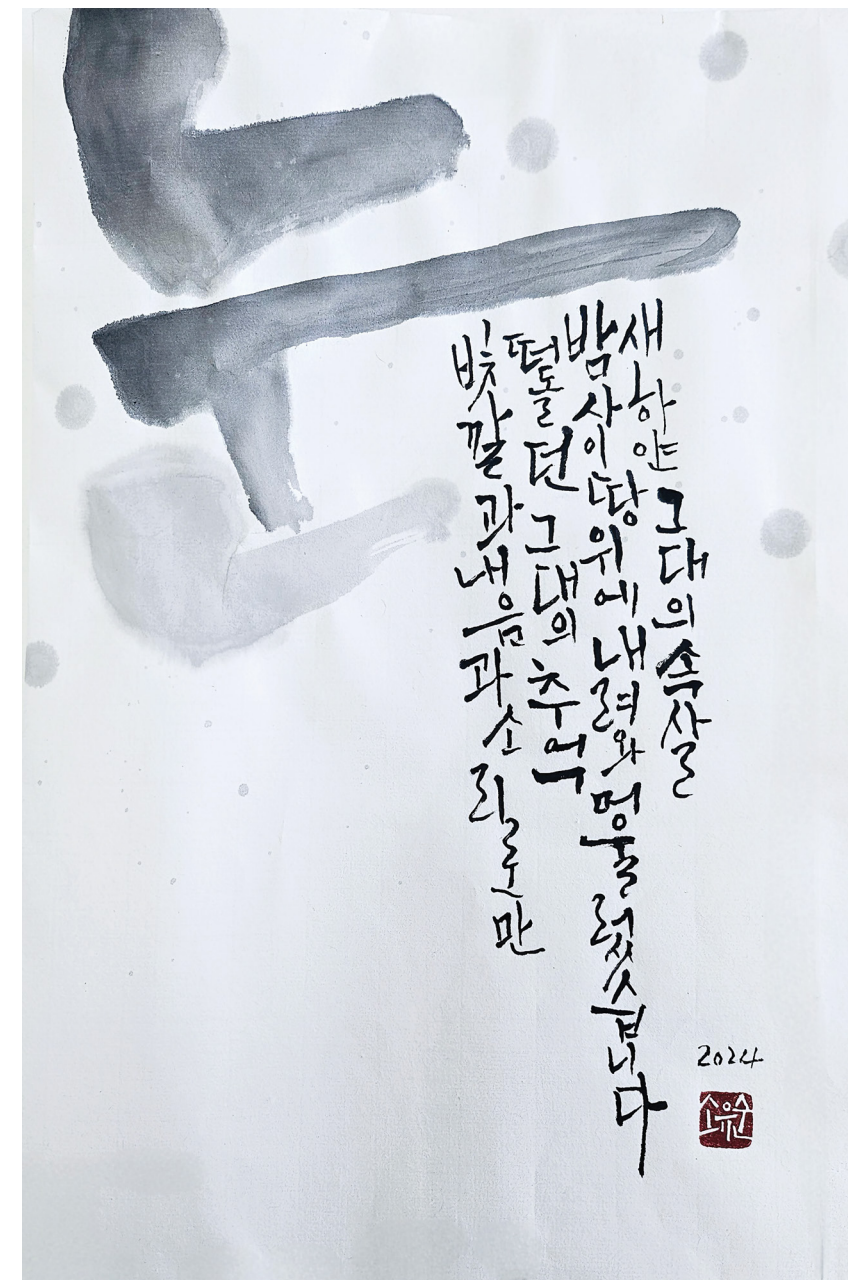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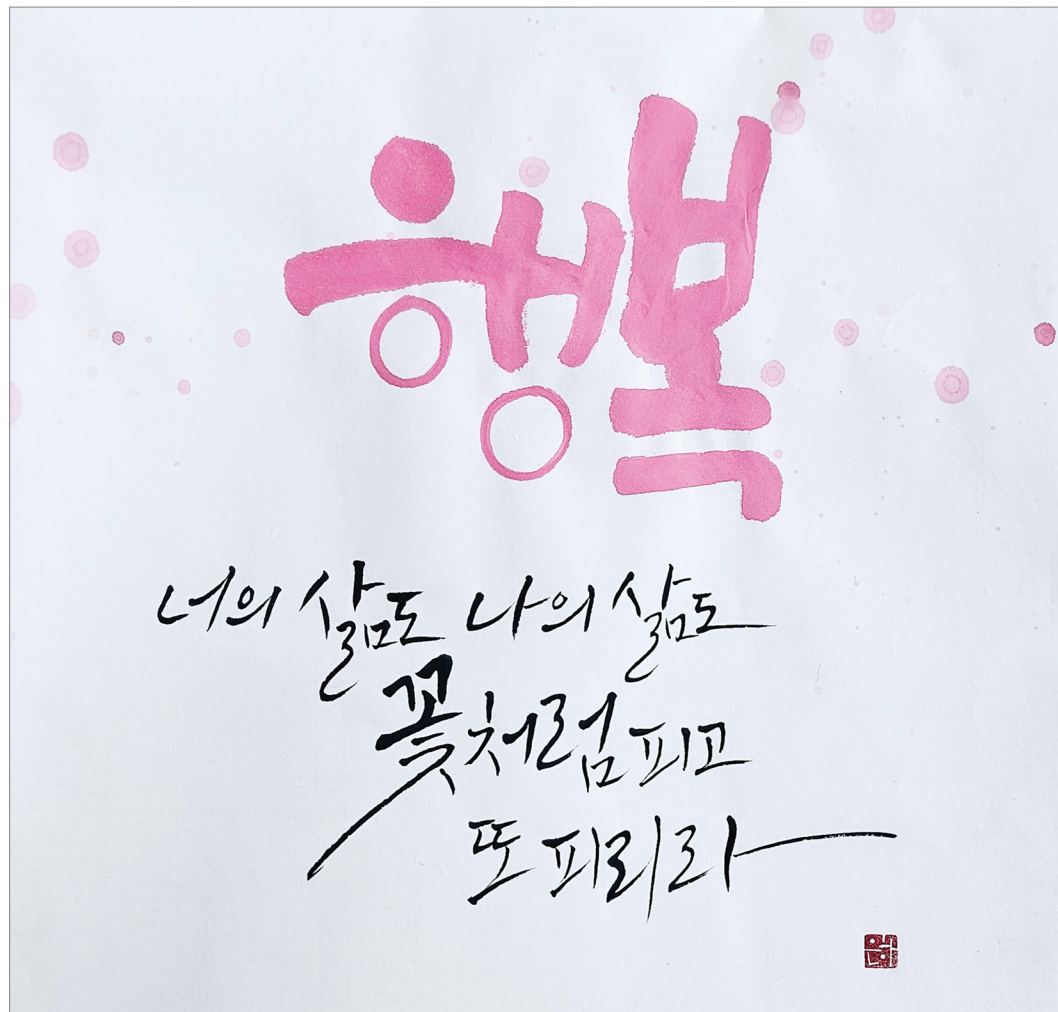


말의 씨앗
류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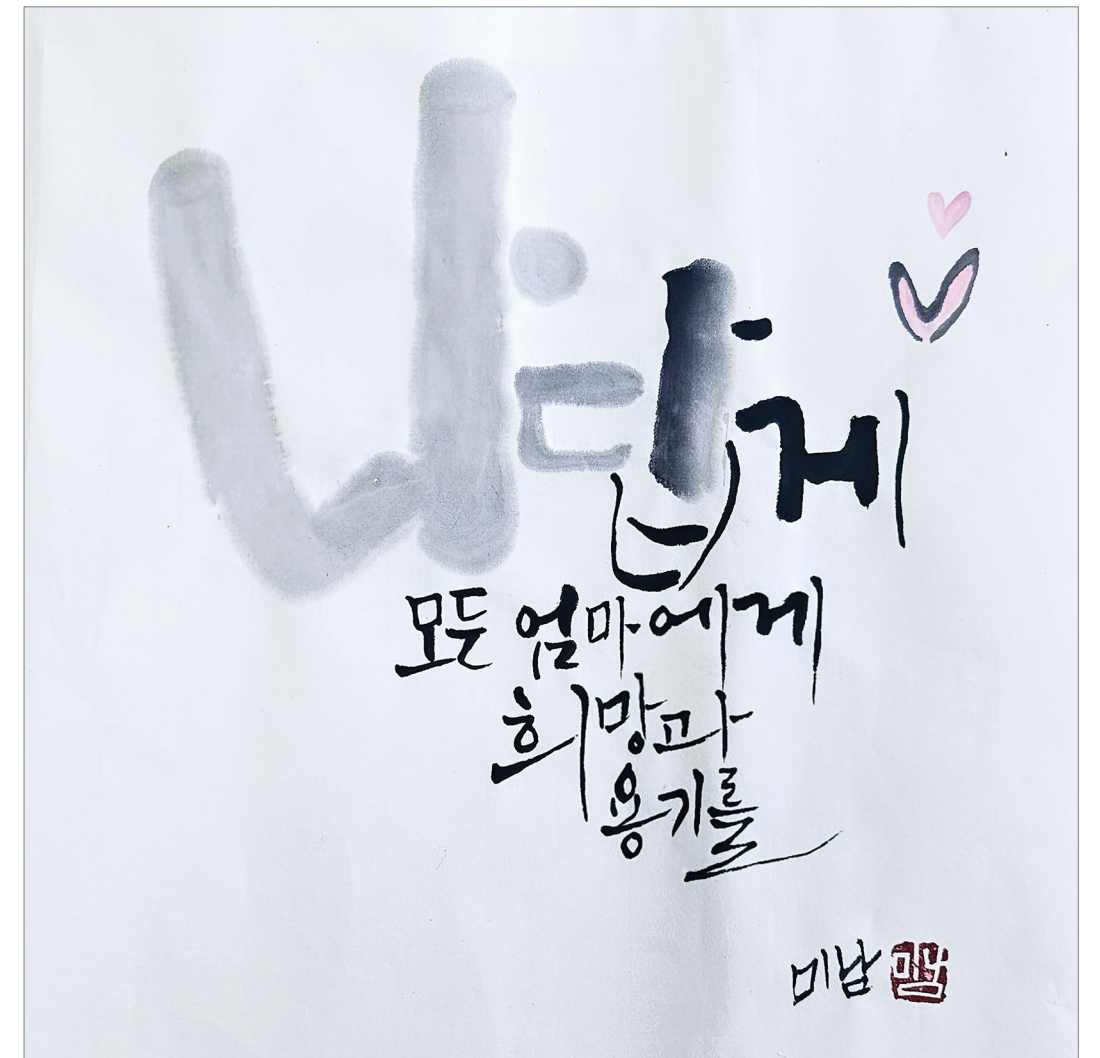


심표
박영미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디지털카메라

지도강사 이동규

출품회원 김명애 윤정미
박상선 이기준
설용환 이은영
송은영 이정호
오흥환



추억을 나누며
김명애

세월의 나이테를 셀 여유없이 각자 달려온 시간속에서도 끊긴 듯 이어진 우리의 인연,
인생의 뒤편길에서 만난 친구와 아침빛이 올라오는 메타길을 걸었다.
얼마 전 인생의 짝을 잃었다는 친구의 아픔을 보듬으며, 영원한 우정을 나누기로 하였다.





꿈 길

박상선

신작로와 함께 사라져간 길게
뻗어있는 미루나무 길에서
나뭇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포근한 겨울 메타쉐콰이어 길을
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먼 과거의 꿈속에서 그려본다.



낭만 고양이

설용환

고양이를 흔히들 '낭만'이라는 글자로 대신한다.
아기 고양이들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올 때,
귀여움을 넘어 본능적인 자립성을 알아볼 수 있고,
인화된 이미지를 통하지 않았다면
그저 고양이의 피상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것에 그쳤을 것이다.
나와 함께 공존하며 무엇을 교감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진다.





소녀와 나비

송은영

그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여름에는 수박이 달고, 봄에는 참외도 있고,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해 주고 싶은 엄마 마음에
곱디 고운 그 시간들을 담아 주고 싶었다.
나비처럼 화려한 비상을 품도록 독려해 가며 영원을 담고 싶었기에 단호하게 셔터를 눌렀다.



빅토리아

오흥환

잔잔한 수면에 떠 있는 빅토리아연과 맞은편에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여인의 반영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빛

윤정미

아이는 웃지 않는다. 아이는 그저 사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하는 존재들이라고 여긴다.
그들에게 웃으라고도 웃지말라고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아이들은 웃지만 웃지 않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웃는 입매를 넘어 우주를 보여주는
그 눈빛에 시선이 머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윤희

이기준

윤희는 이전 생에서 현재 생으로 그리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생애에서의 행동과 업보에 따라 현재 생애에서의 결과가 결정되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희가 반복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행위들은 행의 의미를 만드는 깊은 울림을 갖는데 이는 작은 윤희의 고리와 같다.
피고 지고 열매 맺는 꽃 역시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인간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꽃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그리고
깊은 향도 피고 지는 윤희의 고리와 닮아있다.
그래서 나의 꽃은 인간이며 윤희이다.





벚꽃 전경
이은영

해가 뜨기 전 새벽을 깨우며 홍성천 벚꽃을 찍으러 나갔다.
아직 아침은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멋진 풍광을 기대하며 옷깃을 여미며 드론을 띄웠다.
벚꽃은 만개하였으나 안개도 창궐하였던 이날은 그래도 맛있었다.



혼
이정호

변치 않는 맛을 보관하는 숨 쉬는 옹기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에서도 대충이란 허락되지 않는다.
혼신의 힘을 다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는 장인의 숨결을 느껴보았다.



디지털카메라 강사찬조작품

색과 형상

“사진은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재현”이라 했다.
있는 그대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진이지만,
카메라의 기계적 메카니즘인 다중과 합성으로 새로운 이미지 구성과
경이로운 형상을 창조해 간다.
우리는 흔히 대자연의 장엄한 이미지에 눈길이 끌리지만, 때로는 이채로운
형상과 미묘한 색에 이끌려 감동을 받는다.
염색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색깔로 갈아입은 천들이 아름답고
다양한 형상으로 또다시 다가온다.



창공에 그리다
이동규



2024
예산문화원 문화학교

어반스케치

출품회원

구자영
김진희
류희용
손희숙

신근종
양희주
최경숙



골목안길
구자영

풀내음 가득한 골목안길



골목길 가로등
김진희





남양식당
류희용



서진이네
손희숙

복닥복닥 즐거운 서진이네...
사람사는 냄새가 납니다.





커피숍(카페)
신근중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양희주





여행을 떠나요
최경숙



제 27회
문화회원
작품전

예술의전당



